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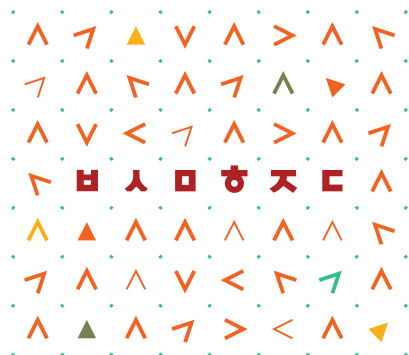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결과자료집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결과자료집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I. 운영기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4
II.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0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6
	02. 사업추진일정	7
	03. 공모내용	8
	04. 최종 선정단체	9
III. 운영단체 및 프로그램	01. 기획형	13
	02. 일반형	43
	03. 인큐베이팅	159
	04.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모임 지원	172
IV. 자체 기획사업	01.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꿈다락'	179
	02. 부산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86
	03. 부산 문화예술교육 인력연수 『A.B.C SCHOOL』	187
	04. 놀이마루 연계 기획사업	189
	05.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	190
V. 역량강화 워크숍	01. 상반기 사업결과 공유 및 정산교육	193
	02.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대상 폭력예방교육	194
	03.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워크숍	195
VI. 사업관리방안	01. 전문가위원 자문회의	198
	02. 전문가위원 그룹 및 현장 컨설팅	201
	03. 수행단체 현장 모니터링	204
	04. 참여자 만족도	205



운영기관

부산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문화예술의 현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추천으로 201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재)부산문화재단이 지정받았습니다.



CI 소개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심볼인 두 개의 ‘ㅅ’은 사람사이, 시민과 예술가, 모든 도시의 관계들의 표정이며 어깨동무를 한 문자배열로 함께 가는 관계를 표현하였습니다. 문화교육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재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설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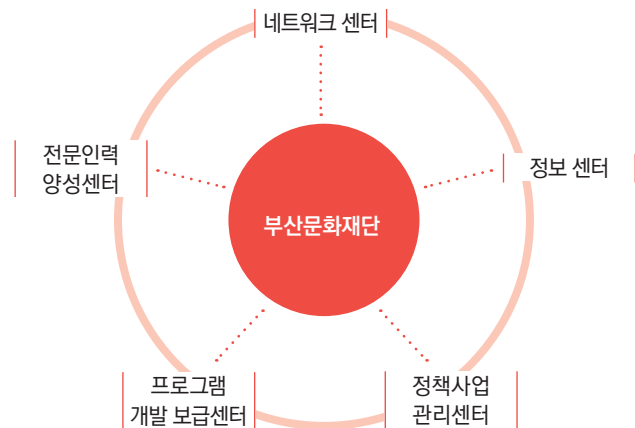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와 시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부산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산업 추진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지역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 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 육성
- 학교,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확보 및 정보 공유 확대

주요역할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0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사업개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와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함께하는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즐거움이 피어나는 꿈의 아지트!

‘2018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또래, 가족, 사회와 소통하고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꿈다락’은 ‘나의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라는 뜻으로 예술이 펼쳐는 상상, 놀이가 주는 즐거움이 가득한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18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55개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예술가와 친구들, 가족과 같이 서로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소질을 발견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도 알아가며 소통을 통해 즐거움과 특별한 토요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명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기간	2018. 1. ~ 2018. 12.
지원규모	1,642,000천원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대상의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시설
교육대상	부산지역 아동·청소년과 가족
사업유형	기획공모, 일반공모, 인큐베이팅공모, 자체기획사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주관	(재)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2 사업추진일정



1월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계획 수립 · 사업운영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설명회
2월	· 기획공모, 일반공모 서류 심의
3월	· 기획공모, 일반공모 인터뷰 및 현장 심의 · 기획공모, 일반공모 선정단체 교부신청 · 기획공모 사업비교부 및 운영 (8개 단체/~12월)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선정단체 대상교육
4월	· 일반공모 사업비교부 및 운영 (42개 단체/~12월) · 수행단체 전문가 그룹 컨설팅 실시 (기획, 일반) · 전문가위원 상반기 자문회의 · 2018~2022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12월)
5월	· 수행단체 현장 컨설팅 실시 (기획, 일반)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축제 기획위원회 (1차)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자문회의 (1차) · 2018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획형 프로그램 공개수업 · 담당자 모니터링 (~12월)
6월	· 수행단체 현장 컨설팅 실시 (기획, 일반)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축제 기획위원회 (2차)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자문회의 (2차)
7월	· 부산 문화예술교육 인력연수 A.B.C SCHOOL 운영(~8월)
8월	· 인큐베이팅 사업공모 및 심의, 선정 · 상반기 결과 간담회 및 정산교육
9월	· 인큐베이팅 공모 운영 (~12월 / 5개 단체) · 자율연구모임 선정 (5개모임)
10월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폭력예방교육 ·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지역네트워크 연수(서울)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축제 기획위원회(3차)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꿈다락’ 설명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놀이마루 연계 기획사업
11월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꿈다락’ 개최 · 하반기 전문가 자문회의
12월	· 놀이마루 연계 프로그램 결과발표 ·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경주) · 수행단체별 사업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03

공모내용

1) 사업개요

- **공모내용** : 아동·청소년 가족대상의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사업기간** : 2018. 4. ~ 12.
- **지원규모** : 1,211,000,000원
- **공모유형** :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경력에 따른 연차별 구분 공모

구분	기획공모	일반공모		인큐베이팅
		1그룹	2그룹	
지원목적	부산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브랜드화	프로그램 안정화	프로그램 안착화	신규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교육 단체 · 기관 · 시설			
	문화예술교육경력 3년 이상 경력단체	문화예술교육경력 3년 이상 경력단체	문화예술교육경력 3년 미만 경력단체	문화예술교육경력 2년 미만 단체
교육차시	제한없음	25차시 내외		10차시
의무사항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축제 참여 · 지역연계 프로젝트 교육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공개수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축제 참여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료
지원금	32백만원 ~ 36백만원	14백만원 ~ 20백만원		8백만원

2) 선정결과

· 56개 단체, 56개 프로그램 선정

구분	기획공모	일반공모		인큐베이팅	합계
		1그룹	2그룹		
지원단체 수	20	65	20	8	113
선정단체 수	8	33	10	5	56

3) 장르별 프로그램 수

음악	무용	미술	연극뮤지컬	영상미디어	전통예술	인문학	사진	통합	합계
5	7	17	7	5	4	1	2	8	56

04

최종 선정단체

연번	지역	단체명	프로그램명	장소	지원금
1	서구	부산예술단	명금일하 대취~타	부산예술단	36,000,000
2	중구	극단해풍	꿈이는 연극단 "부산독립만세"	40계단 문화관 생활문화센터	32,000,000
3	해운대구	문화콘텐츠교육연구소큐브	동해남부산일광 '찍Go' 보물프로젝트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35,000,000
4	금정구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굴뚝에 꽃 피다, 서름사 어린이농악단	Campus D, Underground	32,000,000
5	수영구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예술로 헤엄치는 바다놀이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35,000,000
6	금정구	금정청소년수련관	토요일 토요일은 유스락 (Youth Rock)	금정청소년수련관	33,000,000
7	해운대구	오픈스페이스 배	과학관 속 미술나들이	국립부산과학관	36,000,000
8	서구	부산자연예술인협회	꽃마을 어디까지 가봤니?	꽃마을 openarts stdio	35,000,000
9	사상구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움직임 창작 프로젝트 '신바람이'	사상다누림센터 내 사상문화원 연습실	18,000,000
10	부산진구	극단바라	우리 동네 보물찾기	극단 바라	16,000,000
11	부산진구	"날아 born" play art center	전래동요아 연극이랑 놀자 "동동동 길을 비켜라!!"	통합문화 예술교육마당 얼굴	19,000,000
12	중구	문화예술조은학교	무대위에서 꿈꾸다	문화예술조은학교	16,000,000
13	부산진구	한국판화예술연구원	꿈꾸는 플랫폼 -부산이야기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판화공방	20,000,000
14	사상구	사단법인 푸른마을	사람과 사람, 우정 FRAME III	사단법인 푸른마을	19,000,000
15	사하구	(사)한국 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사하구지회	마음으로 보는 예술여행	가운누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8,000,000
16	해운대구	EEDA	과학의 원리로 찾아가는 Amazing 미술탐험!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17,000,000

연번	지역	단체명	프로그램명	장소	지원금
17	부산진구	문화기획 ACTs	후다닥 놀이학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성지지역아동센터 / 부산시민공원	17,000,000
18	동구	따뜻한 사람	우리의 무대	선임지역아동센터	16,000,000
19	사상구	햇살나무도서관	얼썩썩 놀이 탐험대 마을로 들어간다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집	20,000,000
20	부산진구	댄스위더스	즐거운 토요일 -'비타민 댄스타임'	햇살나무도서관	19,000,000
21	사상구	문화로 외출하는사람들 앤고	좌충우돌!청소년 웹툰 드라마 만들기 '스토리 두잉'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17,000,000
22	부산진구	다다예술교육센터	예술로 만나는 무용극 놀이 "깨비와 함께하는 우리 옛이야기"	당감종합사회복지관	17,000,000
23	기장군	예술연구소 두드림	꿈틀꿈틀 DAN (Dance and Art)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6,000,000
24	수영구	바오마루	애니팩토리 II_ ONLY FUN!	수영성 마을 박물관 3층 (푸조와 곰솔)	19,000,000
25	동래구	사단법인 행복 두드림	Back to the '조선'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17,000,000
26	남구	다운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Helle ~오케스트라	UKO (필그림 콘서트홀)	18,000,000
27	동래구	한국휴먼교육개발협동조합	다빈치아트캠프 (DaVinciArtCamp)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 촌 도자, 금속공방	18,000,000
28	서구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인 부산	별! 별! 우리문화, 풍습 리턴즈 (Returns)~	달밭골 행복문화 나눔터	18,000,000
29	기장군	도시농업공동체 팜파크	업사이클 가드닝 (upcycle gardening)	팜파크	17,000,000
30	동래구	극연구집단 시나위	2018 시나위 연극학교 ARTISTIC PLAY!(예술로 놀기)	극연구집단 시나위 연습실	18,000,000
31	해운대구	문댄스프로젝트팀	흥 버리 나가신다!	해운대구 인문학 도서관	18,000,000
32	동래구	부산평생교육진흥회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내 고장 문화지도 만들기)	부산평생교육진흥회	18,000,000
33	중구	모퉁이극장	상상영화제, 공상 프로그래머, 몽상관객	모퉁이극장	18,000,000
34	해운대구	울파란	모두가 자진소리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7,000,000
35	영도구	극단 청개구리	찾아보는 부산스토리 '그림자극 배움터'	영도구 영어도서관	19,000,000
36	부산진구	드림교육센터	동화랑 함께하는 예술놀이터	동화랑 놀자!	19,000,000

연번	지역	단체명	프로그램명	장소	지원금
37	남구	극단여운	뮤지컬 영화 주인공은 바로 나	지아트센터	15,000,000
38	동래구	민요그룹 '흥'	우리 동네 예술학교 - 어린이 다온 국악대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7,000,000
39	중구	더드림아트센터	꿈다락' 파바팝팝콘 AR' 예술냄비에 과학기름을 둘러 창의 팝콘을 튀기다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19,000,000
40	금정구	DOT미술관(예술공간DOT)	작품으로 만난 우리	DOT 미술관	20,000,000
41	영도구	꿈꾸는 베프	배리어프리 원정대	해운대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14,000,000
42	금정구	사단법인문화예술 인적자원개발센터	연극 young영(像)	미라클사회서비스센터	19,000,000
43	기장군	바투아트	Good 세라의 상상키친	바투아트 교육장 및 대룡마을 일대	20,000,000
44	동래구	상상편집소 피플	마을을 방랑하는 꼬마 김삿갓	온천제일지역아동센터	19,000,000
45	동래구	세상과 소통하기	미디어로 재현하는 근현대사 '영웅들이 돌아왔다'	학부모지원센터	19,000,000
46	금정구	스트릿무브먼트	Break Time	SOUL BOX	16,000,000
47	수영구	인디고서원	인디고 에디터 스쿨 청소년 책 만들기 프로젝트	인디고 서원	20,000,000
48	해운대구	재단법인 고은문화재단	카메라로 바라 본 "나, 너, 우리"	고은사진미술관	20,000,000
49	북구	정미숙무용단	몸으로 소통하는 세대 공감	화명동 종합사회복지관	20,000,000
50	동구	드림꿈센터	내 마음속 작은 세상 꿈을 그리다	부산장애인부모회	20,000,000
51	기장군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신나는 하이파이브, 토요가족합창단	기장종합사회복지관	18,000,000
52	금정구	피스 오브 클래식	음악정거장	서동예술창작공간 2층 다목적실	8,000,000
53	기장군	피움문화예술교육연구소	토토즐! 토요일, 흠으로 즐기는 문화예술	부산도예교육센터	8,000,000
54	남구	예술터미널	꿈을 안고 떠나는 타임머신 여행	남구노인복지관	8,000,000
55	중구	부산공예문화예술연구소	한지로 그리는 감성 그림책	글마루 작은도서관	8,000,000
56	부산진구	세상을 바꾸는 도자공예 협동조합	자기나라, 우리나라	부산진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8,000,000

기획형 01

부산예술단

부산예술단은 1984년 부산풍물패 사물놀이로 창단되어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 왔으며, 2000년을 맞아 젊은 전통예술인(무용, 국악)들로 재구성하여 “부산예술단”으로 발족한 단체로, 2009년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받아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예술단은 부산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전통음악, 전통춤을 바탕으로 공연, 교육, 연구를 활성화 하여 전통을 기반으로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고, 문화와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명금일하 대취~타

교과과정에 나오는 대취타와 부산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조선통신사축제와 관련하여 조선통신사 행렬도상에 있는 원형의 재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취고수와 세악수 편성으로 역사의 의미를 되살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국악기(타악기, 태평소, 나발, 운라, 나각, 해금, 피리, 대금 등)를 접할 수 있는 복합 다원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전통예술
교육기간	2018. 04. 14. ~ 2018. 11. 24.
교육장소	부산예술단, 부산시립박물관, (사)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운영단체 및
프로그램

단체명
부산예술단
문의처
051-254-9642
ksh7358@hanmail.net
홈페이지
www.bpac.co.kr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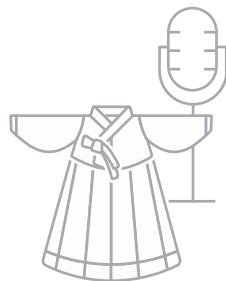
조선통신사행렬참가

부산 대표 국제교류행사인 조선통신사 행렬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연주를 함으로써 예술적 건문을 넓히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조선통신사 행렬참가를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세대에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



어린이 국악노래 부르기 잔치 초청공연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어린이 국악노래 부르기 잔치> 행사에 오프닝 공연으로 초청되어서 무대에서 대취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웅장한 잔치를 열 수 있었음. 국립기관이라는 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어린이 잔치에 어린이들이 축하공연을 하는것에 대한 의미가 뜻깊었음



현장스케치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부산박물관에 견학하여 부산의 문화재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예연구사의 역사특강을 통해 어렵고 생소한 역사 공부에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조선통신사 의상을 직접 입어봄으로써 아이들과 가족들간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액자 만들기 체험행사로 즉석인화기를 이용하여 기념사진을 바로 출력하여 자신이 만든 액자에 기념사진을 바로 넣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기념품을 부여할 수 있었다.



부산대학교 견학

부산의 대표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 견학을 함으로써, 전통 예술의 범위를 벗어나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음. 또한 평소 접하기 힘든 국악기(특수악기) 체험을 통하여 국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시간 또한 마련해 주었음. 한국음악학과 교수진의 특강과 재학생들의 국악공연관람을 라이브로 관람할 수 있었음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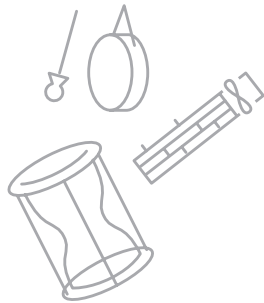
여름국악캠프

1박2일 여름국악캠프를 통하여 학생과 강사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합주 연습 및 파트별 집중연습을 통해 실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캠프 중간에 4D 맥스라이더 체험, 자유수영, 간단한 레크레이션 등으로 아이들이 즐겁고 추억에 남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립부산국악원 견학

부산에 있는 국립예술기관인 국립부산국악원에 방문하여 대극장, 소극장, 북카페, 전시실 등을 견학해봄으로써, 부산에 있는 예술기관에 대해 알고 국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토요일명나무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대취타 이 외 다른 장르의 국악을 접할 수 있으며 공연예절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장스케치

부산예술단 자체성과발표회

1년 간 학습해온 것을 바탕으로 부산예술단 자체 성과 발표회를 열어봄으로써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가족들을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족 간의 화합의 시간 또한 마련해 줄 수 있었음



담당자 후기

2016년을 시작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명금일하 대취~타'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지 올해로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의 전통음악을 교육하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부산예술단 강사들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악교육은 실기교육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항상 마지막에는 성과발표회라는 것으로 실기성과를 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부산의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여러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야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실기능력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강사진들 간의 다양한 견학 및 레크레이션 등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심어 주는 것에 집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실기능력을 겸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교육방식과 다양성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

김상훈 기획자

부산예술단에서 '명금일하 대취~타' 교육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주강사로 활동은 못 했으나, 아이들의 집중적인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무료로 수업을 하곤 했습니다. 대취타에 나오는 타악기는 매우 다양한데 악기별로 강사진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강사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주강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예술단 단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꿈다락을 멋지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기획공모로써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으며, 그 결과 더욱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술단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발 벗고 앞장 서서 나가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성훈 주강사

기획형 02 극단해풍

'부산에서 부는 해학과 풍자의 바람' 극단 해풍은 <포빅타운>, <타미카레드>, <어른왕자>, <북극여우까망이> 등 다양한 창작연극 작품의 공연과 꿈다락 토요일학교 <꿈이는 연극단 부산독립만세> 시민극단 몸투레, 시민극단 감동진 등 다양한 연극 교육 사업을 통하여 부산연극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이는 연극단 <부산독립만세>

연극놀이를 통한 상상력, 표현력, 창의력을 키우고 부산근대역사관, 백산기념관, 40계단문화관, 보수동책방골목기념관 임시수도기념관을 체험한 후 부산의 근대 역사를 주제로 한 연극 만들기를 합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연극작품은 중구원도심지역의 축제에서 공연을 하는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 꿈다락 토요일학교의 기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르 연극 (역사)
교육기간 2018. 4. 14. ~ 2018. 11. 24.
교육장소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단체명
극단해풍
문의처
070-7346-7146
홈페이지
www.facebook.com/
Good.SeaWind/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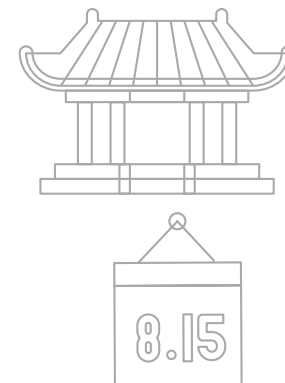
1-6차시

다양한 연극놀이를 통하여 빨리 친해지는 시간! 다 같이 놀다보면 다양한 표현을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았을 뿐인데 연극이 되었습니다.



7~11차시

부산근대역사관에서 부산의 근대 삶의 모습을, 백산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님을, 40계단문화관에서 한국전쟁과 피난민의 삶을, 보수동책방골목기념관에서 한국전쟁시절의 책방골목의 형성과 삶을 임시수도기념관에서 한국전쟁의 모습과 피난민의 삶을 체험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23~26차시 발표회

부산의 근대역사를 체험하고 우리는 부산의 근대사로 연극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백산 안희제선생님의 독립운동이야기, 한국전쟁과 피난이야기, 그리고 보수동헌책방골목이야기로 연극을 만들어 보수동책방골목축제, 밀다원시대문학제, 중구생활문화축제 그리고 꿈다락 축제에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후기

꿈이는 연극단이 5년이 되어 기획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기수로 하던 것을 1기수로 진행하게 되어 많이 지쳐서 그만 두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1년을 같이 보내니 정이 더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안 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해볼까?”라고 합니다. 연극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지나니 아이들의 상상력과 협동심이 너무나 뛰어나게 발전했습니다.

이상우 기획자 겸 주강사

꿈다락이 끝나고.. 토요일 시간이 허전 하고 아이들 웃는 사진도 들여다 보게 되네요. 기획 사업으로 꿈이는 연극단 친구들 공연들이 많아서 정말 바쁘게 돌아간것 같습니다. 상반기 체험했던 것을 토대로 상상력을 더하고 장면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우리 강사들은 아이들이 상상한것을 구체화 시키고 무대화 하기 위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음악을 더하고 의상을 더하고 앙상블을 맞추어가며 보람을 느꼈고,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어갈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송민정 주강사

기획형 03

문화콘텐츠
교육연구소 큐브

문화콘텐츠교육연구소큐브는 다양한 예술교육 강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만들 수 있도록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교육을 구축하고 증진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일광 '찍GO' 보물 프로젝트

어린이 컬러 프로듀서가 동해남부선의 일광을 여행하며 지역의 생활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며 그 속에 숨은 가치와 고유한 전통 예술 문화를 발견하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주도로 지역의 환경,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 및 시선이 담긴 동해남부선 일광 '찍GO' 보물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합니다.

장 르 미디어 (창작, 체험, 캠프, 관람, 상영)
교육기간 2018. 04. 07 ~ 2018. 12. 01
교육장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대상 초등학교 5학년 ~ 6학년

단체명 문화콘텐츠 교육연구소 큐브

문의처 cube1533@daum.net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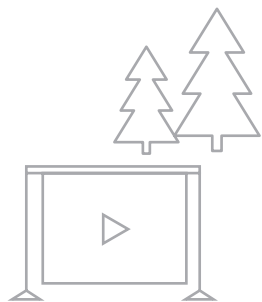
애니/ 광고반 : 일광 짱GO 픽시레이션/ 뮤직비디오 제작
뉴스/ 영화반 : 동네방네 취재 및 촬영하기

일광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뮤직비디오에 필요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일광의 보물을 영상에 담는 활동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들어갈 가사를 완성하며 일광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보물로 삼을만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광 반두개비 짱Go Camp' [우리는 자연과 함께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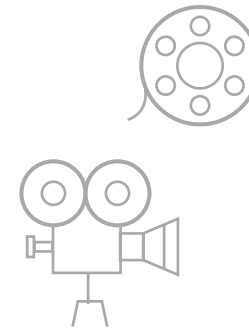
우리가 직접배우고 운영하는 VR카드보드 만들기, 특수분장, 페이스페인팅 문화 체험 존을 만들어 많은 친구들과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하루였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일광을 취재하면서 만든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광dot 자리 영화축제는 앞으로 제작할 영화제작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광 속 캠프를 통해 어느 누구 보다 일광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스케치

짱GO 보물섬에서 필름 나르기

10번이 넘는 NG에도 주차장과 비상구를 뛰어 다니면서 다양한 영상들이 재밌게 촬영되었습니다. 시나리오가 배우의 연기를 통해 촬영이 되면서 의상과 소품을 꼼꼼하게 챙겨주며 영화제작을 능숙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전 현장 회의를 통해 촬영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모든 구성원들이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제작을 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담당자 후기

동해남부선 일광 '짱GO' 보물프로젝트를 시작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알면서도 지명을 몰라 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 못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광을 답사 할 때 관광지의 관리, 행정업무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지역의 정확한 역사나 정보, 관광지의 모습, 관광명소 등을 뉴스, 광고의 수업방향으로 일광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일광의 보물을 알아보는 광고팀과 일광의 문학, 축제, 길을 주제로 한 뉴스팀은 3회의 현장 취재를 통해 관광객과의 인터뷰, 일광운영수문관관 이연옥 관장님의 인터뷰로 일광의 문학과 역사를 서면인터뷰를 받고, 일광 주민들이 생각 하는 일광의 보물이 무엇인지도 취재를 하였습니다. 취재 하는 3회 동안 더운 날씨에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먼 취재 장소를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광고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7월 캠프와 일광 dot자리 영화축제를 하면서 일광 주민들과 함께 일광의 보물 광고, 뉴스, 영화를 보며 자신들의 작품에, 취재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너무 힘들고 하기 싫었다면 아이들이 수업에 빠졌을 텐데 캠프 이후 아이들은 더 열심히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힘을 모았습니다. 각반은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시나리오작업, 콘티를 만들고, 카메라 앵글에 관한 회의 후 영화 제작에 몰입하며 각반의 "Action"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촬영 후 또 다른 난관인 편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모든 작품에 액자를 끼워주는 것 같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표현하기 위해 아이들이 편집에 대해 이해하고 더빙, 자막처리를 배웠고 편집을 잘 마무리해서 대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짱GO 보물섬 대축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날, 공개홀 입구에 영화 포스터, 스트링아트, 교육사진들의 전시를, 세미나실에서는 문화 체험존 운영과 뉴스를 상영했고, 공개홀에서는 아이들이 진행하는 광고, 영화를 상영하고 학부모님들과 친구들은 아이들의 영화를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하안 도화지에 점을 찍고 그림을 그리듯 미디어로 내 생각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알아보고 제작하고 공유하면서 나와 가족을 넘어선 우리에게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였고, 아이들의 꿈이 한층 더 커져 있을 것입니다.

이기영 기획자

기획형 04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단체명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문의처
051-516-4434
홈페이지
www.ipongmul.com

1992년 창단 이후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문화기획사업과 예술공연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아울러 자체 예술단의 수많은 해외공연과 각종 행사, 축제 등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은 기획팀, 공연팀, 교육팀. 부설기관'유아국악연구소 두두리'로 구성되어 부산 지역 민간단체 유일의 상근단원(1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연팀 및 교육팀의 전원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이수자 및 전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굴뚝에 꽃 피다, 서금사 어린이농악단, 굴뚝꽃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농악을 포함한 우리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농악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여 공동체 속의 나를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 르 전통 (음악, 놀이, 미술 등)
교육기간 2018. 4. 14. ~ 2018. 11. 17
교육장소 Campus D, Underground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130)
교육대상 초등학교 전학년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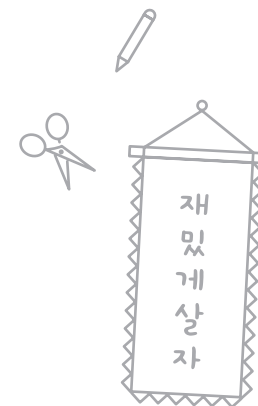
농악의 다섯 방향 (1)

부모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어요. 오방진품이 가락도 배워보고, 오방깃발을 응용한 기족깃발도 만들어 봤어요. 온가족이 함께 깃발을 만들고 장단도 같이 연주하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집에서든 함께 가족깃발을 만들어서 완성시켰어요.



어린이 공원은 농악 놀이터

공원에서 마음껏 놀아보아요. 보물찾기 놀이를 활용하여 모듬을 정해도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듬별로 농악을 쳐 보고 10월에 있을 공원축제를 상상하고 지도로 그려 봤어요. 여러 색깔의 종이를 숨긴 뒤 같은 색을 찾은 아이끼리 조를 이루니 서로 거부감이 없는 것이 장점!



현장스케치

공원은 농악 놀이터, 서금사 어린이 축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그 동안 배웠던 내용을 발표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축제를 금천어린이공원에서 진행하였어요. 각 가정에서 가져 온 물품을 나누고 전통 놀이 등을 체험하며 동네 아이들과 어른신이 하나가 되었어요.



담당자 후기

아이들이 꿈다락을 통해 우리의 민속음악인 “농악”을 배우고, 그 속에서 놀이와 협동, 조화를 이루어 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농악”이라는 매개가 단순한 음악적 기능전수가 아닌 생활 속 재미가 가미된 놀이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장이 되어 뿌듯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서로가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에 아이들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저 또한 함께 성장해 갑니다.

박정희 주강사

처음 만났을 때 여리기도 하여라. 또 한편으로는 파릇파릇 호기심에 초롱초롱 새색 같은 아이들. 장난도 잘치고, 그러다 다투기도 하여 울음이 터지기도 하여 화해하는 번도 배우며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며, 나와 내가 어느새 한데 엉기어 뭉글뭉글 거리던 시간들. 1년을 보내며 어느새 키가 자랐듯 몸도 마음도 훌쩍 자라 한 움큼 깊고 넓어졌네요. 시원 섭섭, 벌써 또 보고픈 아이들,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임채련 주강사

기획형 05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부산 지역 안에서 ‘시각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로 문화 예술교육, 거리예술, 전시, 축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 벽화작업, 빈집 아트등 실험적인 작업들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안리 및 조방아트마켓과 지역별로 차별화 된 아트마켓 기획 및 운영을 하면서 작가들에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로 헤엄치는 바다놀이터

모래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다양한 미술장르의 작가들과 함께하는 노작 활동을 통하여 상상력, 창조적 발상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동적인 수업보다는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팀 작업과 공공 물의 디자인을 겸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장 르 미술 (예술활동+모험+탐구를 놀이로 연계한 교육)
- 교육기간 2018. 04. 21. ~ 2018. 11. 24.
- 교육장소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단체명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문의처 051-231-9009

현장스케치

바누아트 부족 모래그림 패턴만들기

바누아트 부족 모래그림을함께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본다. 각자의 그림의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 어떻게 배치하고, 무슨색을 만들어 쓸 것인지 함께 토론하며 진행해본다. 어떤 주제로 묶어 하나의 형태로 만들 것인지 각자의 그림을 하나의 형태로 조합할 것인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



바다 미술제 준비하기

아동들이 스스로 바다 미술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결정하며 오프닝에 진행될 퍼포먼스의 시간을 확정하고 아동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려왔던 패턴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색이 필요할 것인지, 누가 흙을 다질 것인지, 누가 바닷물을 그릴 때 뿌려줄 것인지 등 각자의 이야기를 모두 총합한 모래그림을 만들었다.



현장스케치

바다 미술제

바닷가 전시 및 공공미술로 만드는 작품 전시, 깃발전, 무료 체험전 및 아동들을 위한 퍼포먼스 행사 가족이 함께 즐기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별함이 있는 어린이 바다 미술제



담당자 후기

광안리 바다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아이들과 함께 모래사장 을 탐험하고 주은 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바닷물에 들어가 놀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지역 작가님들과의 수업을 통하여 창의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어린이 바다 미술제를 기획하고 모래사장에 직접 설치하고 퍼포먼스로 완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경험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상미 강사

광안리의 지역성을 살리고, 바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바누아트부족, 어린이바다미술제를 진행하며 스토리텔링과 아이들과의 연계점을 찾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되돌아보니 아동들이 흥미를 많이 가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구나 하고, 강사와 아동모두 각자 마음속에 광안리와 어린이바다미술제라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정지원 강사

기획형 06 금정 청소년수련관

단체명
금정청소년수련관
문의처
051-231-9009
홈페이지
www.youthcool.or.kr

청소년 참여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체험활동, 자기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은 유스락 (Youth Rock)

〈유스락〉이라는 청소년들만의 음악 장르로써 청소년들이 기초 악기 교육 후 팀별로 직접 창작곡을 만들어 전문 녹음하여 그들만의 창작곡을 CD앨범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음악
교육기간 2018. 04. 07. ~ 2018. 11. 24.
교육장소 금정청소년수련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차로 96번길 47)
교육대상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10세~16세 청소년)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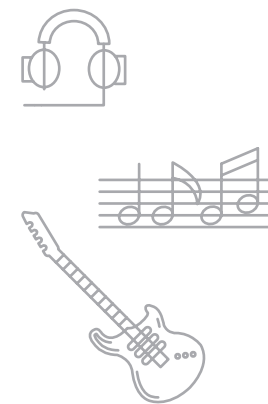
각 악기의 기초 교육 및 작사하기

기타, 드럼, 베이스 세 개의 파트로 팀별로 악기를 정하고 악기의 기초교육을 실시함. 그리고 팀별로 각 악기의 창작곡 코드, 리듬, 작사, 앨범 디자인 등을 만드는 기초 과정



1박2일 청소년 매드맥스 음악캠프

팀별로 레크레이션, 다양한 악기들로 음악미션완성하기, 음악미션 발표회 등 또래 친구들과 1박2일간 소통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음악캠프. 초청 뮤지션의 공연관람과 뮤지션 라이프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짐



현장스케치

팀별 창작곡 발표회

팀별로 만든 창작곡으로 무대에서 발표회를 실시하고 완성된 창작곡 CD앨범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짐. 2018년에는 총13개 팀의 13곡과 꿈다락 로고송 1곡, 총 14곡의 유스락 창작곡이 탄생하였음



담당자 후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단연 마지막 순간의 뿌듯함이 가장 큰 것 같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의 아쉬움, 힘듦, 등은 그 마지막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창작곡을 발표하고 CD를 완성하는 그 순간에 모두 즐거움으로 바뀐다. 특히 우리 주강사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 참가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활동한 참가청소년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이훈무 기획사

악기를 배우고자 혹은 다른 새로운 악기에 도전하고자 또는 작곡을 하여 앨범을 만들고자 모인 참가자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을 볼 때면 나 역시도 올해는 재미난 곡들이 얼마나 만들어질까 하며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꿈다락을 시작한다. 하지만 재미난 곡들, 가사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무한한 그 능력에 감탄할 때가 많다. 아이들 뿐 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항상 되새겨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된다.

이철규 주강사

기획형 07

오픈스페이스 배

오픈스페이스 배는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위치한 비영리 예술 공간이다. 매년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의 작가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배는 예술가의 무한한 상상력을 교육, 전시, 창작, 커뮤니티 아트 등의 예술적 실천으로 확장시켜, 지역사회 속에 예술의 가치가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속 미술나들이

과학관 속 미술나들이는 상상의 눈으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며, 오감과 마음을 열고 예술과 과학, 사람과 자연을 만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현대미술활동을 기반으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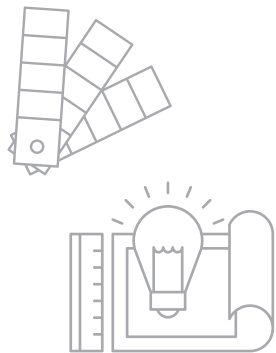
장 르 통합 (예술+과학)
교육기간 2018. 4. 7. ~ 2018. 12. 16.
교육장소 국립부산과학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59)
교육대상 초등학교 2학년 ~ 4학년

단체명 오픈스페이스배
문의처 artebae@hanmail.net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opennn123t
홈페이지 spacebae.com

현장스케치

색으로 바꾸는 세상

무채색의 단조로운 타일로 이뤄진 과학관의 야외정원을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색깔의 세계로 바꿔본다. 자신만의 도구를 활용하여 공간의 길이를 재고, 재료를 재단하면서 익숙한 공간을 낯설고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본다.



Picnic Project

과학관 뒤뜰을 코볼소와 얼룩말이 뛰노는 아프리카 초원으로 만들고, 해먹을 걸고 돛자리를 깔아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휴식과 쉼의 가치를 일깨우고 상상력 속에서 자연과 교감을 통해 생각과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이다.



현장스케치

과학과 예술의 하룻밤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수업 과정과 결과물을 갈무리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담당자 후기

과학관에서 '예술'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해였다. 단정하고, 형식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발랄한 생각들이 피어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역시 아이들에게 힘이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어버린 건, 세상을 느낄 새도 없이 정답만을 요구하는 어른들 때문이 아닐까.

문지영 주강사

실수를 격려하고 엉뚱한 생각을 칭찬한다. 자신을 의심하고 실패를 주저하는 아이들을 믿고 기다린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답 보다 훨씬 멋진 답을 말해준다. 엉뚱하지만 재미난 상상들, 생각해보니 과학관에서 왜 미술을 배우는지 의문을 가진 아이들이 없었다. 과학 속에 예술이 있고, 예술 속에 과학이 있다는 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내가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무언가 전달하려하기 보다는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함께 즐기며, 충분히 기다려주는 수업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한명신 보조강사

기획형 08 부산자연 예술인협회

단체명
부산자연예술인협회
문의처
artinnature@naver.com
홈페이지
www.finaf.net/main/main.php
blog.naver.com/artinnature

부산자연예술인협회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활동 및 공헌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창작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영역으로는 문화체험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꽃마을 주말 아트캠프, 서동미로시장 상인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범일동 마을 역량사업), 문화예술제 기획(국제 아트캠핑 페스티벌 등), 국내외 문화 단체 간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꽃마을 어디까지 가봤니?

꽃마을의 역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강화하고 꽃마을의 자연적인 배경으로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야외에서 다양한 작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자연예술인협회가 함께 작업하고 있는 현업 활동 작가와 해외작가 및 작업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넓고 다양한 예술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장 르 미술 (도자, 목공예, 드로잉)
교육기간 2018. 4. 7. ~ 2018. 11. 24.
교육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9번길 57-52 아트인네이처
교육대상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및 학부모

현장스케치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 탐방과 전통주 체험

촌장님과 부촌장님의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의 구석구석 안내를 받으며 작가들의 삶과 생활, 예술마을의 특성을 알아보고 색다른 전통 주 담금 체험을 통해서 우리고유의 술 빛기를 알아본다.



목공작업으로 도자작품을 마무리와 마을지도 채색

마을지도를 만들기 위해 목재에 철재프레임을 짜서 설치하여 흰색 페인트로 채색한 후 꽃마을 이미지를 밑그림을 그려서 페인트와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여 완성한다.



현장스케치

전시될 전시 준비 및 오프닝

직접 전시 디스플레이를 해보고, 오프닝상에 차릴 음식들을 만들어본다. 작품들을 마무리를 하고 전시를 보러온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다과를 즐기며 작품을 감상하며 소감을 이야기해본다.



담당자 후기

도시화와 첨단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고층 아파트와 스마트폰을 보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도시가 발이 많이 되더라도 아직 부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꽃마을 어디까지 가봤니?'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여주고 마을 어른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과 함께 뛰놀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예술과 함께 더욱 마음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겼습니다.

조성백 기획자

문화 예술 활동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꽃마을 어디까지 가봤니?'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노는 모습, 아크릴 물감을 채색하고 도자기를 만지며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며 강사로서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게 해주어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이 강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 중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또한 아이들이 서로 서로 친해지고 강사선생님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수업을 통해 미술적 체험뿐만 아니라 더욱 큰 가치와 행복을 얻은 것 같아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박진경 주강사

2018년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지역연계 프로그램

- 일 시 2018. 5. 26.(토) ~ 5. 27. (일)
- 장 소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기획형 프로그램 교육장소 (8개 장소)
- 참여대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가자 및 학부모, 일반시민

부산예술단

나는 부산박물관 조선통신사!

부산박물관에 견학하여 부산의 문화재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예연구사의 역사특강을 통해 어렵고 생소한 역사공부에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하기 힘든 조선시대 전통의상을 직접 입어 봄으로써 아이들과 가족들 간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제공



극단해풍

꿈이는 연극단 <부산독립만세>

연극놀이와 함께 상상하며 "동요"를 접목한 작은 연극 발표회 개최. 특히 100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근대건축문화자산인 한성은행 부산지점(청자빌딩)에서 발표회를 가짐으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부산근대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



문화콘텐츠 교육연구소 큐브

예술 놀이터 짝GO

학부모와 함께하는 공개 체험 실시. 가족 간의 마음 나누기로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는 '예술 놀이터 짝GO' 프로그램 제공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서금사 어린이 농악단

우리나라의 민속음악 중 가장 공동체문화가 뛰어난 농악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오방색 기발 만들기를 이용한 협동작업진행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문화를 경험 제공.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바다를 품은 진주

'바다를 향한 기억, 문화예술교육의 체험'을 주제로 자연경관을 즐기고 모래를 만지며 바다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재기억하는 놀이 및 탐험을 진행. 바닷가에서 놀이를 통해 보물찾기 진행 후 바다에서 찾은 모래속 보물을 가지고 내손안의 바다를 표현한 광안리 바다 캔들 제작.



금청청소년 수련관

"토요일 토요일은 유스락"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야외수업에서의 간단한 팀별 합주 실시로 스트레스 해소 (팀별 합주 체험 실시)하고 야외에서의 일반시민 대상 실용음악악기 체험으로 인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악기연주체험 제공.



오픈 스페이스배

구속의 드로잉

어린이는 밝게 꿈꾸는 우리의 미래이다. 하지만 이들도 나름의 고민과 시련을 포함한 인간이 갖는 다양한 감정 체계를 경험하고 극복한다. 구속되고 과학적 원리가 숨겨진 제한된 환경에서의 드로잉체험은 불편해서 즐거운 체험이 될 것이다. 부산국립과학관의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인 사이언스 에코파크의 시설을 활용하여 드로잉 체험 활동을 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 중인 아동들의 체험은 물론 과학관에 관람 온 일반 관람 아동에게도 체험의 기회를 공유한다.



부산자연 예술인협회

꽃마을 어디까지 가봤니

단순한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지역의 이야기 역사 문화와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마을 곳곳에 벽화 등으로 제작, 내가 사는 지역을 이야기가 있는 문화 마을로 만들어 본다.



일반형 09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은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와 감성을 개발하고 도덕적 함양에 이바지하는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프로그램

움직임 창작 프로젝트 신바람이

몸의 자유로움을 통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 연구소 플랫폼의 움직임 프로젝트입니다.

- 장 르 통합 (무용, 노래)
-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24.
- 교육장소 사상다누림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단체명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문의처
art-platform@naver.com

홈페이지
m.blog.naver.com/art-platform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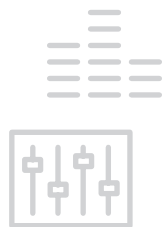
첫 수업

처음 만나 어색한 선생님, 친구들과 움직임 놀이를 통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움직임 놀이를 하면서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녹음작업을 하다

녹음실에 가서 그동안 배웠던 노래를 연습하고 팀을 나누어 직접 녹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가 본 녹음실, 다양한 기계들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직접 녹음을 하며 긴장을 하는 모습도 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장스케치

공연 그리고 수업 끝

11차시동안 수업한 움직임, 노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대해 즐겁게 공연을 진행하였고 무사히 공연을 마무리하며 움직임 창작 프로젝트 신바람이 수업이 종료되었다.



담당자 후기

주말 아침마다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텐데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아이들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예술교육의 가치실현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움직임만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의견을 과감없이 들어낼 수 있는 순간들을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백소희 기획자

이정임 강사

일반형 10 극단바라

단체명
극단바라
문의처
1600-1716
bara1996@naver.com

홈페이지
cafe.naver.com/crazytwo

극단 '바라'는 1998년도에 창단된 젊은 극단 '수채화'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실험적이며 젊은 연극운동의 제언자로서 언더그라운드 연극을 시도하였으며, 13회에 걸친 창작 정기 공연을 대중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공연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연극·뮤지컬 등 극예술의 대중화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에 재 설립 되었습니다.

극단 '바라'는 다양한 극예술 장르의 작품 활동을 통해 젊은 연극인들의 힘 있고 생동감 있는 공연으로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극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꾸준한 창작활동과 제작을 통해 극예술과 대중공연예술문화의 저변확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공연예술관련 아카데미활동과, 청소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워크샵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의 공연문화의식 향상과 예술감성 평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꾸준한 초대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정기 공연과 기획, 초청공연, 소극장에서 대극장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항상 살아 있는 예술, 생각하는 예술, 창조하는 예술로서 대중 앞에 참다운 극예술 극단으로서 다가서고자 합니다.



우리동네 보물찾기

지역 청소년들에게 내 고장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의 명물과 명소에 대한 탐방 활동을 통해 우리고장의 이야기를 알리고 주제를 선택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다큐영상과 공연예술인 연극을 접목하여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 키노드라마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 (역사+영상+연기)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0. 20.
교육장소 극단바라 연습실(부산진구 신천대로 108 인제빌딩 3층)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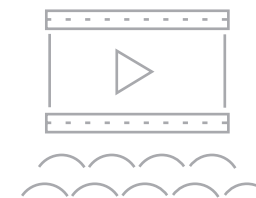
학생들과의 첫 만남



영상제작을 위한 현장답사



그 동안의 제작과정을 기반으로 발표회 진행



담당자 후기

연극 무대만 서다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큰 마음 먹고 임하였습니다. 처음해보는 강사였지만 학생들도 잘 따라와 주어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부분도 서로 보완해가며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 무대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실즈 주강사

주강사님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우리 동네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보조 일만 해도 다들 알아서 해주시니 좋은 기회로 다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곽희규 보조강사

일반형 11 “날아, born” play art center

단체명
“날아, born” play art center
문의처
zimtirano@hanmail.net

“날아, born” Play art center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 중 특히 연극 분야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연극을 접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설립한 단체입니다. 연극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한 노인연극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이 풍요로워 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전래동요야 연극이랑 놀자 “둥둥둥 길을 비켜라 II

우리나라 전통 전래 동요를 연극을 통해 배우고,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알아가며, 전래동요 가사 말에 어울리는 몸짓을 찾아보고 직접 극을 써보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연극+국악)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1. 23.
교육장소 통합문화예술교육마당 얼굴 (부산진구 연지로 15 지하)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4학년

현장스케치

탈만들기 실내수업

특강 선생님과 자기만의 개성을 살린 탈을 만들어서 탈춤놀이에서 탈을 쓰고 놀기 위한 모습



현장스케치

야외수업 (캠ป์)

뗏목을 타는 모습. 우리나라 전통 뗏목을 타고 노를 저어 이동해보면서 체험하는 모습



결과발표회

국악 동요 “비가 온다 뚝뚝” 공연 발표 색동 우산을 가지고 노래가사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장면



담당자 후기

2017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을 2018년에도 업그레이드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학생을 모집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프로그램 진행시에 참여도가 낮으면 대기 학생으로 대체 될 수 있다는 업포(?)를 놓으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학생들과 학부모와의 신뢰는 커졌고, 학생들도 더욱 재미를 느끼는 모습이 좋았다. 또한 강사가 아닌 기획자인 저에게도 별명을 부르며 친해졌다. 프로그램 중반 캠ป์와 현장학습 등으로 학생들과 주강사, 보조강사가 많은 애정과 신뢰로 뭉치는 것을 보며 너무 기뻐고, 자체발표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기뻐다. 열심히 참여해준 학생들이 고맙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께도 감사히 생각한다. 또한 부족한 저의 단체를 이끌어주신 재단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승호 기획자

2017년 첫째 수업진행 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고민을 많이 했다. 2017년 첫째에는 어떻게 하면 전래동요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을 했다면 올해에는 이미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전래동요를 학생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눈높이에 맞춰 같이 호흡하고자 하였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참여와 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더욱 힘을 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캠ป์를 통해 학생들과 같이 자연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체험도 하고, 같이 놀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사랑스러워 짐을 느꼈다. 마지막 자체 발표회 때 학생에게 수료증을 줄때는 학생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에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즐겁고 재미난 전래동요를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고 싶다.

정정보은 주강사

일반형 12
문화예술
조은학교

단체명
문화예술조은학교
문의처
051-245-0074
gp-gp@hanmail.net
홈페이지
www.gp-g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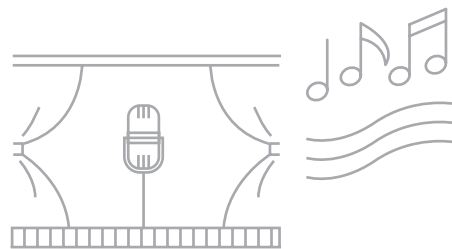
2016년 설립된 문화예술전문교육기관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활동 및 개발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대 위에서 꿈꾸다

종합예술 장르인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만들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목표: 뮤지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성 및 협동심을 기르며 창의적인 활동의 시작점이 된다.

장르 뮤지컬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17
교육장소 문화예술조은학교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8층)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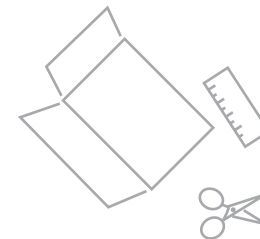
글쓰기, 최종연습

그룹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대본(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고정된 그룹이 아니라 매 수업마다 여러 조합으로 그룹을 정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야기를 모아서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으로 노래와 연기를 하며 하나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무대 만들기

1,2기수 모두 특히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종이상자와 폼보드 등을 활용하여 벽도 만들고, 집도 만드는 등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에 어울리는 무대를 직접 꾸며보았습니다. 주어진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창의적인 소품과 무대를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결과발표회

뮤지컬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만든 이야기로 구성된 내용이라 기존의 작품이 아닌 우리만의 이야기로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객석에서 응원을 해주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담당자 후기

프로그램 시작 전, 그룹 컨설팅에서 결과발표회를 위한 커리큘럼이라는 지적을 받고, 강사선생님들과 다시 많은 고민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커리큘럼을 만들 때, 뮤지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접목시켜보려고 하였는데,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너무 큰 꿈을 꾸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불안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동일한 커리큘럼이지만 교육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해보고자 노력하였고, 우리의 걱정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덕분에 2번의 결과발표회 모두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들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무대에서 직접 쓴 이야기로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는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배우고, 노력해야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이 컸던 올해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은정 기획자

작년 꿈다락 수업을 처음 진행해보면서, 꿈다락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뮤지컬이 무엇인지, 연극이나 드라마와 어떻게 다른지 같은 일반적인 수업을 하기 보다는 '뮤지컬'이라는 주제를 통해 음악, 춤, 연기, 미술 등의 문화예술을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크게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이지만 거의 결석 없이 즐겁게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 덕분에 저도 다시 한 번 긍정적인 힘을 많이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손수경 보조강사

일반형 13 한국판화 예술연구원

한국판화예술연구원은 1999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예술관련 다양한 장르(전업작가, 미술교사, 예술행정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의 전문가 30여 명을 구성원으로 출범하여, 협업해오면서 체험수업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프로그램을 연수하고 다양한 시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판화가들을 중심으로 창작활동과 더불어 작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체험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전문적인 인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지역의 폐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사 연구하고 전국규모의 대형국제행사에서 임원들이 기획자로 활동하는 등 미술을 통한 세계 속에 우리문화를 알리기에 적극 참여중입니다.



꿈꾸는 플랫폼- 부산이야기

'꿈꾸는 플랫폼-부산이야기'는 판화라는 미술장르에 음악과 건축이라는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미술영역을 보다 확장된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12차시에 걸친 수업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며, 수업단계별로 예술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체득해 가는 과정을 통해 누구라도 사소한 발상에서부터 출발해서 콘텐츠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입니다.

또 '부산시민공원'이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산의 근·현대사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아이들이 예술표현을 통해 미래의 부산을 꿈꾸고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 장 르 미술(판화)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2. 01.
교육장소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판화공방, 흔적파고라(야외체험장), 공원역사관
교육대상 1기 초등학교 2~4학년 / 2기 초등학교 4~6학년

단체명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문의처 051-467-3965
chaigh88@daum.net
홈페이지 blog.naver.com/art8949

현장스케치

음악과 함께하는 부산이미지와 색채표현

소리가 색을 만나면? 우리는 단지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색마다 음이 있단니?! '피터와 늑대'에 나오는 다양한 악기소리에 악기를 찾아보고, 악기소리로 느껴지는 감성에 맞는 색상도 이야기해보고 '윌리엄 텔 서곡'을 감상하면서 스위스 독립운동과 부산시민공원의 역사를 비교해보다.

'윌리엄 텔 서곡'을 주제음악으로 하여 시민공원을 무대로 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보다. 스토리의 등장인물들을 판화로 표현하고, 다시 인형으로 제작하면서, 음악과 미술, 무대디자인, 조명, 연출에 대한 관계를 다소라도 이해하다.



공원에서 하루

부산시민공원의 역사는 부산의 근·현대사를 대변한다. 부산시민공원을 투어하면서 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알아가고 부산의 역사도 배우다. 무엇보다 역사와 장소를 기억하면서 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한 드로잉으로 사진제판평판화를 제작하다.



현장스케치

'빛과 그림자파티'전

10월의 마지막 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다. 성과물 전시는 물론 우리아이들 수업에 참여했던 모습을 보는 슬라이드쇼와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해보는 '빛과 그림자 파티'존으로 구성했다. 흔적파고라의 '빛과 그림자 파티'존은 아이들이 만든 이미지와 사물에 빛을 이용한 공간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상상력을 키워주는 환상적인 공간이 되었다.



담당자 후기

이번학기에는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매번 설레면서 올해도 봄학기과 가을학기 두 번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고 머뭇거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달려와서 꺼안길 때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는구나 깨닫곤 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들의 상상력에 놀라고, 꼼꼼하게 한 작품씩 완성할 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하는구나 감동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교사·학생 모두 만족한가 생각해보니 학교 밖 자유로운 속에서 존중받고 케어 받으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도울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잘 해결 수 있도록 개인에 맞게 의논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무엇보다 절대 재미없는 수업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신선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수업이라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항상 시간을 다 채우고도 ~ 벌써 마칠 시간이라니~아쉬워하곤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래 그때 그랬구나."하며 저절로 웃게 됩니다. 애들아! 여러분들의 꿈나무 잘 키워주세요.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채경순 주강사

2017년 첫해 수업진행 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고민을 많이 했다. 2017년 첫해에는 어떻게 하면 전래동요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을 했다면 올해에는 이미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전래동요를 학생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눈높이에 맞춰 같이 호흡하고자 하였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참여와 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더욱 힘을 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캠프를 통해 학생들과 같이 자연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체험도 하고, 같이 놀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사랑스러워 짐을 느꼈다. 마지막 자체 발표회 때 학생에게 수료증을 줄때는 학생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에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즐겁고 재미난 전래동요를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고 싶다.

박인숙 주강사

일반형 14
사단법인
푸른마을

단체명
사단법인 푸른마을
문의처
051-316-7711
홈페이지
www.ohappyday.org

민간복지법인으로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인권, 권익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재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사회적 재활 유도하고 장애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우정 FRAME III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시각적 자극을 눈으로 보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사진으로 남겨 단편의 기억을 넘어 오랜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접하게 하고 본인의 눈이 아닌 렌즈를 통해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게 하며,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게 한다.

장 르 사진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17.
교육장소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260
교육대상 지적 장애 청소년

현장스케치

사진지도 만들기

여름 캠프 때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사진과 여름이 지난 가을의 낙동강의 모습을 주제로 학생들과 사진 지도를 만들어 봄.



첫 야외촬영

지난 차수까지 카메라작동 및 기능들을 배우고 첫 야외촬영으로 낙동강의 봄을 찾아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촬영하는 친구들을 다시 찍어본다.



우리만의 전시회

매 차수마다 찍은 사진 중에 작품사진을 선정해서 우리들만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료식을 가져본다.



담당자 후기

2년 동안 처음 사진을 접하고 사진을 촬영해보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촬영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꽃을 보고 얼굴을 보고 자세도 취하고 웃으며 사진의 매력을 좀 더 느끼게 된 한해였고, 친구들에게 지도하며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과 아이들의 변화되는 표정이 한해를 보람되게 했던 행복했던 2018년..

정승식 주강사

이번 수업에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 너무 이쁘고 자랑스럽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학생 작년보다 더 예쁜 사진을 카메라에 담아줘서 고맙고 처음 참가한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노인희 주강사

일반형 15 (사)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사하구지회

단체명
(사)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사하구지회
문의처
051-261-5966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sahaok>

본 단체는 2009년 법인등록을 하여 전국에 많은 지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협회는 부산장애인관광지원센터를 부산시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문화해설사 전문 과정' 운영, 테마가 있는 여행을 주제로 하는 인력 양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교육의 역량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예술 강사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행복을 전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예술여행

미술과 무용이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유도하고 일상과 미지의 세상을 발견하고 상상하며, 확장된 창의적 사고력으로 스스로 집중하고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가능성으로 정서의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다름과 개성을 인정하며 사회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미술 + 무용)
교육기간 2018. 04. 21. ~ 2018. 11. 10.
교육장소 부산시 사하구 윤공단로 35-1
교육대상 장애아동과 가족

현장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 점, 선, 면, 공간으로 인지확장
- 내가 가고 싶은 곳 생각하며 길 만들기
- 내 집과 연결된 길을 만들기
- 길 따라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기

현장스케치

휴과 하나 되어

- 주물주물 흙을 만지며 휴과 친해지기
- 지렁이 동그라미, 네모, 달팽이 만들기
- 각각의 만들 것 들을 순서대로 쌓아가며 붙인다.
- 주변 정리하고 손 씻기



만선의 기쁨

- 커다란 종이로 서로 협력하여 종이배를 만든다.
- 낚시 도구와 물고기를 만든다.
- 커다란 배에 모두 올라타고 물고기를 낚아 올려 본다.
- 물결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만선의 기쁨을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담당자 후기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 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웃고 떠들던 토요일의 만남은 아쉬움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알아 주고 사랑해주는 긍정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소통할지 모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애정으로 천천히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다. 예술로 표현하고 소통하고 수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은 커져만 갔다. 사랑스런 눈빛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익숙하던 나의 이름에서 출발하여 무관심했던 일상의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그 새로움의 충격으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잠시 힘들었지만, 그 낯선 상황에서 아이들은 집중하며 호기심을 일으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을 향유하며 남과 다른 특별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민 기획자

김정진 주강사

일반형 16
EEDA

단체명
EEDA
문의처
sivonwha@gmail.com
홈페이지
cafe.naver.com/e2da

EEDA는 Education, Engineering, Design, Art의 머리글자를 딴 명칭으로 교육공학 박사 1인, 디자인학 박사수료 1인, 미술학 박사 과정 1인, 기계공학 석사 졸업 2인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예술융합단체입니다.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결과물을 산출하며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원리를 찾아가는 Amazing 미술탐험!

‘과학의 원리 + 미술활동’의 융합교육으로, 기후 환경과 대체에너지와 같은 녹색융합 프로젝트를 몸으로 체험하고, 양력의 원리, 토네이도 생성의 원리 등 과학의 원리를 이해한 후 이를 미술 창작활동과 융합함으로써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인 미술활동능력을 기르는 융합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총 12주의 수업이 하나의 스토리로 설계되어 있고, 또 각 주차마다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개인의 스토리를 구성하며, 매 차시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전체의 수업이 개연적이면서도,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학습자 스스로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동료학습자의 결과물에서 서로 다른 스토리를 통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기반학습, 문제해결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 학습자의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미술+과학)
교육기간 2018. 5. 12. ~ 2018. 11. 10.
교육장소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교육대상 초등학교 4~5학년

현장스케치

여행길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 동물들을 이용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여 제작하고, 빛을 넣어 생동감 있게 제작하는 활동이다.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었나?

우주 스페이스나 블랙홀 등을 상상하여 모빌로 제작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무게, 크기, 재질의 재료를 제공하여 무게 중심을 맞출 수 있는 미션을 제공하여 문제해결적 사고력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현장스케치

집으로 돌아가는 길-아빠를 만났어요!

가족과 함께 메이커활동을 할 수 있으며 쉽게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채색도구로 제작하는 활동이다.



담당자 후기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17여년을 가르치다가 학교 밖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흥분되기도 했고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학생선발 과정에서 1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집단 등록 및 집단 이탈)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2기 때는 3:1의 경쟁률이 넘는 인기 속에서 진행되는 뿌듯함도 느껴보았습니다. 꿈다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 이 수업이 정말 공짜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 시작할 때 꿈다락에 대해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 좋은 기회를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재단과, 운영단체 등 여러 기관과 사람들의 협력이 많은 아이들의 장래에 큰 결실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정문주 기획사

예술기반의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고 2기 프로그램에 바로 수정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고 어떤 활동을 먼저 하고, 어떤 활동을 나중에 할지 수업구성 원리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료를 준비하면서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아 힘들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메이커활동에서 칭찬과 격려를 들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혜정 주강사

일반형 17 문화기획 ACTs

문화기획ACTs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영어이름 ACTS의 변형이며, '행동하다, 연기하다, 대행하다'의 재창조이기도 합니다. 기본 소식을 전하려 열정적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움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 하듯 관계 맺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연극 및 공연을 기획 제작하고, 교육하고, 찾아서 전하는 문화예술의 창의적 매개역할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1) 연극문화 발전을 위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연극의 기획, 제작, 공연, 교육
- (2) 장르를 넘나드는 융복합 공연 및 문화단체간의 연대
- (3) 어린이 인형극 및 아동 청소년극 제작
- (4) 부산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기획 등



후다락 놀이학교 -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부산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후다락 놀이학교는 '제기차기', '비석치기', '슬래잡기', '구슬치기', '다방구',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다양한 놀이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야외놀이를 통한 즐거움과 신나는 토요일을 만들어 줍니다. 다양한 놀이의 원류를 찾아보고 드라마(이야기)로 구성하여 짧은 연극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놀이가 작품이 될 수 있는 변용의 시간을 통해 연극 문화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장 르 통합 (놀이활동, 문학, 연극)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17.
교육장소 성지지역아동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시민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대상 초등학교 3-6학년

단체명 문화기획ACTs
문의처 bluenote69@hanmail.net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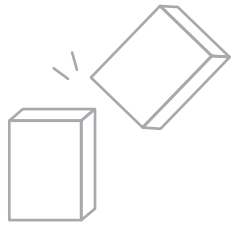
몸으로 표현하기

특강시간 쥐와 고양이, 나는야 최면술사, 거울 놀이, 자동차 놀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후, 몸으로 숫자 만들기 와 글자 만들기를 거쳐 몸으로 장 소표현하기에 이르렀다.(산, 동물원 등) 숲속의 귀여운 동물을 표현 하였다. 어떤 동물로 보여 졌을까?



비석치기

간단한 스트레칭 후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책받침 제기를 하고 비석치기를 하였다. 4-5미터 정도 거리에 금을 긋고 가위 바위 보로 두 편으로 나눈다. 진편의 말을 금위에 세운다. 1단계 던져서 넘어트리기부터 발등, 발목, 무릎으로, 똥쌌바지, 떡장수 등 진행자가 말하는 단계별로 상대방의 비석을 넘어트리 고 많이 넘어트린 승자 1, 2, 3위를 가린다.



놀았던 놀이를 스토리텔링

놀았던 놀이를 스토리텔링- 베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게임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전통놀이 5형제의 도움으로 게임의 세계에서 구출되는 이야기를 완성 하였다. 배역을 정하고 연습한 연극을 무대위에서 발표!



일반형 18

따뜻한 사람

극단 따뜻한 사람은 성악가, 작가, 배우, 연출로 오랜 시간 활동하며 역량을 키워나간 이들이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 및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주제를 토 대로 공연 분야 육성, 문화예술 교육 분야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께 뜻을 모아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의 무대

우리 극단이 창작한 음악극 “고려의 잔다르크 월이” 작품을 통해 고려말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참여한 아이들이 극 속 인물과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함으로써 몸짓 표현과 노래, 다양한 율동 등 문화 예술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뮤지컬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17.
교육장소 선임지역아동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북로14번길 21)
교육대상 초등학교 3학년 ~ 중학생

단체명 따뜻한 사람

문의처 bsbhsm@daum.net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wjekrichsiwkz/

현장스케치

내소리 찾기

조음기관, 발성기관 이론수업과 발성과 호흡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 색을 찾아 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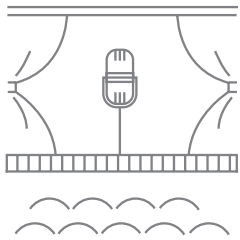
연극관람

실제 공연인 연극 '검정 고무신' 관람을 통해 연기, 공연 에티켓, 무대, 조명, 소극장 등을 체험하고 공연 본 소감을 간단히 나누면서 공연예술과 더 가까워졌다.



우리의무대 발표회

실제 소극장인 가온아트홀에서 아이들이 직접 각색한 '고려의 잔다르크 월이'를 공연함으로써 참여한 아이들이 극 속 인물과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함으로써 몸짓 표현과 노래, 다양한 율동 등 문화 예술의 다양한 체험을 했다.



담당자 후기

한 해 동안 정말 특별 한 경험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25주차 수업을 기획 하면서 많은 변수 와, 많은 상황들이 발생 하였지만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끝까지 수업에 참여 해준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 합니다.

허석민 기획자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감 있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력 있게 잘 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게 되었는데 정말 잊지 못 할 추억입니다.

임민경 주강사

일반형 19

햇살나무도서관

아이들에게 쉽고 꿈을 주기 위해 엄마들과 교사들이 힘을 모아 만들고 운영하는 햇살나무는 책 읽는 곳을 넘어 마을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을의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따뜻한 도서관이 되고자합니다.



일주절수 놀이탐험대 마을로 들어가다

- '나와 너, 우리가 만드는 놀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관계형성을 통한 새로운 놀이개발
- 공동체놀이, 전래놀이, 연극놀이를 제안하고 학습대상의 개성과 정서, 주어진 환경에 맞는 새로운 놀이 개발
- 새롭게 개발된 놀이의 규칙은 모두 아이들 스스로가 제안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프로그램 편성
- 놀이문화제 발표회로 놀이시연을 통해서 마을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어울리도록 하고 스스로 만들고 개발한 창작놀이를 지역에서 펼쳐 내도록 합니다.

장 르 공동체놀이+창작놀이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1. 24.
교육장소 햇살나무도서관, 고동바위놀이터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29)
교육대상 초등학교 3학년 ~ 5학년

단체명 햇살나무도서관
문의처 051-312-1391
홈페이지 cafe.daum.net/suntreelib

현장스케치

다양한 놀이 진행

종이를 길게 자르기, 머리에 이고 달리기, 종이뿔목, 멀리던지기, 낙서 속에서 명작 찾기, 종이하나로 완전 초 집중



얼쭈절쭈놀이탐험대

얼쭈절쭈놀이탐험대의 여름캠프 밀양평리산 대추마을에서의 하룻밤 물놀이부터 뗏목타기와 매기잡기, 도깨비산책, 달빛영화제 진행



현장스케치

마을놀이터축제

너희들은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의 주제로 아이들의 창작놀이를 자신들이 놀이 대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색 꼬, 컴퍼스, 막 막, 건물주, 동백, 불링비석치기, 물음의 왕국이라는 놀이로 진행하였다.



담당자 후기

올해는 아이들의 창작놀이를 발견해내기 위한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나게 놀고도 오늘은 조금밖에 못놀았다며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논다는건 뭘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놀려고 세상에 왔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늘 공부스트레스와 학원을 가야되는 압박감으로 노는 시간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꿈다락을 통해서 그나마 그런 아이들의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다는게 감사할 뿐이다. 공원에서 바깥놀이중에 할머니한분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왔고..예쁘네'하시면서 연신 웃음을 보여주시고 놀이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신다.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울리고 마을에 울리면서 사람들에게도 동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마지막 창작놀이는 아이들이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여 행복했다. 자신들이 만든 놀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놀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도 너무 멋졌다.

놀이의 체험, 놀이의 공유, 놀이의 발견, 이를 통해 마을에서 자리매김 된 아이들의 사회적역할부여, 그리고 자발적 자기발언! 아이들은 마을에서 같이 뛰어 놀아야 된다" 한해동안 함께 한 얼쭈절쭈 놀이탐험대에서 함께 놀이를 만들고마을단위에서 여러 세대가 발견된 놀이들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과정 그 시도 자체가 최고의 성과라 생각한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놀이에 이름을 붙이고 마을에서 공유하는 것, 꿈다락의 미래이자 마을의 미래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모라의 아이들과 함께 굿은일 마다하지 않고 살갑게 다독인 햇살나무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선희 기획자

박은주 주강사

일반형 20 댄스위더스

댄스위더스는 무용을 통해 창의적 표현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단체는 무용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 무용을 중심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며 지역민들과 나눔,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연구, 실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 '비타민댄스타임'

대중문화에서의 무용, 치어댄스를 다양한 시각에서 체험, 이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서로 협력하며 지지, 응원하는 마음을 나누는 '협동예술'입니다. 더불어 자기들이 직접 만든 치어댄스 작품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소통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장 르 무용(치어리딩)
-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2. 1.
- 교육장소 진구청소년문화의집 (부산 진구 진남로8번길 32)
-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3학년

단체명
댄스 위더스
문의처
pobby1915@hanmail.net

현장스케치

특강(화합의 스텐트)

교육대학교 탐방을 통해 진로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 체조를 바탕으로 하는 스텐트의 전문기술을 안전하게 습득하는 특강을 실시함



결과발표회

직접 안무하고 구성하며 열정적으로 연습한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리며 용기와 도전, 성취감을 얻는 무대공연을 제공함



현장스케치

응원 나눔 댄스

또래의 장애(발달장애)를 가진 친구, 언니, 오빠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춤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플래시몹을 통해 관객과도 함께 소통하며 지역주민들과 교감하는 진정한 나눔을 경험 할 수 있었다.



담당자 후기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매체와 대중문화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감정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좋아할 요소가 담긴 프로그램을 연구하던 저는 치어리딩을 접하며 그 속의 교훈과 열정, 응원의 힘을 찾았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24차시를 만나며 치어리딩의 열정, 응원, 지지, 협력 통해 교감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정한 '춤추는 행복'을 관찰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 후배와 함께 춤추고 지역주민들과 그 행복을 나누며 자신감과 감동을 맛보았다는 친구들은 '중학생 시절의 가장 좋은 추억'이라는 말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저 또한 꿈다락 친구들과 작은 변화와 감동의 시간을 보내며 '제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 이었다는 말로 친구들에서 보답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어디에 있든 늘 응원합니다! 잊지 못할 아토~ 파이팅 ~

김민경 기획자

'파이팅!' '힘내' '잘 하고 있어!' 긍정의 에너지가 넘쳤던 2018년 비타민 댄스타임 수업현장! 다함께 소리치고, 춤추며 즐거웠던 시간이 벌써 끝난 것을 아쉬워하며.... 2019년 희망찬 새로운 응원을 기대합니다.

도수영 주강사

일반형 21 문화로 외출하는 사람들 앤고

아이들에게 쉽고 꿈을 주기 위해 엄마들과 교사들이 힘을 모아 만들고 운영한다. 햇살나무는 책 읽는 곳을 넘어 마을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을의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따뜻한 도서관이 되고자합니다.



최충우돌 청소년 웹툰 드라마 만들기 "스토리두잉"

최근 가장 뜨거운 콘텐츠로 떠오른 웹툰과 드라마로 청소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연극적 놀이로 표현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화그림을 구성하고 직접 드라마로 창작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웹툰+드라마)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1. 18.
교육장소 사상구청청소년수련관
교육대상 고등학생(1기)/중학생(2기)

단체명 문화로외출하는사람들 앤고
문의처 051-529-4465
홈페이지 cafe.naver.com/andgo2013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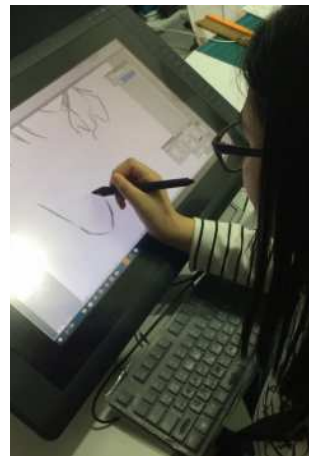
만화 스케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서로 이야기해본 것을 바탕으로 먼저 만화 스케치를 해 보고 인물의 역할을 정하여 촬영했던 활동이다. 서로 공감하며 캐스팅도 직접해 보면서 토론과 촬영을 반복했었고, 제작되는 과정에 성취감을 많이 느꼈었던 기억에 웃음이 났다.



웹툰제작 견학

대한민국 웹툰1세대 남정훈 작가님을 만나서 시나리오 구성법과 웹툰작업공간을 견학하였다. 웹툰 제작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과 태블릿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완성해보기도 하였다.



현장스케치

웹툰드라마 전시, 상영회

웹툰드라마 전시 및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활동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피드백 활동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작한 드라마를 상영하고 다양한 시상상을 하며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 후기

올해의 꿈다락, 그 과정은 제 스스로를 깨어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떤 '이미지'로서가 아닌, 뜨거운 진정성을 가지고 기획자로서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말하며, 언어 이상의 언어를 문화예술교육으로 구현하여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갖춘 교양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며, 그보다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해하며, 그들이 가진 '표현의 욕구'의 기저로 함께 하나의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가 보는 잠수부 동료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옥시윤 기획자

사상구, 그리고 그 인근의 청소년수련관, 그 안에 미처 날개를 펴지 못한 청소년예술가들과 오랜 숨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포착했습니다. 레옹과 마틸다처럼 서로가 스승이자 제자가 되도록 하고 행복한 삶의 순간들로 쌓아가기 위해서 온 세포를 열며 그들과 호흡한 모든 순간이 세레머니이고 예술이었습니다.

강이안 주강사

일반형 22 다다예술 교육센터

단체명
다다예술교육센터
문의처
eunj0127@naver.com

다다예술교육센터는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고 공연하는 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다년간 전국의 도서관 꿈다락 프로그램을 함께하였으며 2016 ~2017년은 경주 정동극장의 바실라 공연 팀과 함께 경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꿈다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예술교육으로 성장합니다. 그 경험이 헛되지 않고 즐거울 수 있도록 다다 예술교육센터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술로 만나는 무용극 놀이 “깨비와 함께하는 우리 옛 이야기”

“깨비와 함께하는 우리 옛 이야기”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우리가 경험 했던 놀이와 춤을 이야기에 접목시켜 공연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속에서 무용극이 탄생 하게 되고 함께하는 무용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 창의력을 키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역할에 따라 의상 교체 등장과 퇴장 등 무대에 오르며 발생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도 경험하게 됩니다.

장 르 통합(무용+전통+연극+문학)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0. 27.
교육장소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16)
교육대상 초등2~6학년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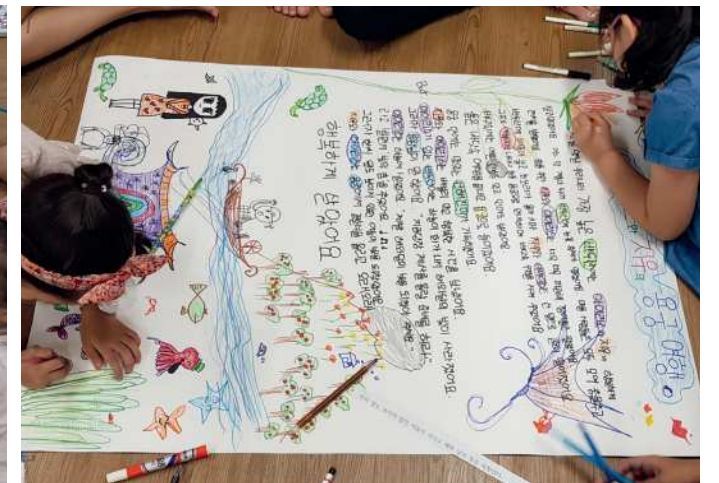
이야기 만들기

여러가지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드는 3장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그림에서 2장을 선택하여 보충하여 자기의 감정 이야기로 만들어 발표하여봅니다.



무용극 구성하기

놀이를 통해 이야기 만들기를 여러번 반복하며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등을 넣어서 무용극이 되는 이야기를 구성하여 전체 막을 나누기 전 종이에 정리를 해 봅니다.



현장스케치

이야기와 놀이를 넣은 무용극 완성!

우리들이 만든 이야기에 우리가 놀았던 놀이들을 넣고 등장시 필요한 의상과 소품을 만들고 춤도 연결하며 무용극 놀이로 만들어 보았어요.



담당자 후기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4월 설례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2013~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무용특강강사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국 28개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후 2년 동안은 경주 정동극장과 인천 체드워의 친구들과 함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책임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부산 당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부산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많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꿈다락 프로그램은 학습을 통해 지식을 얻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데 예술을 매개로 행복하게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땀 흘리며 신나게 뛰어 놀 친구도 없고 공간도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지만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하고 학교 후에는 학원 투어로 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꿈다락 프로그램은 뛰어놀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로 즐겁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며 많은 예술경험으로 꿈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예술로 만나는 무용극 놀이 <개비와 함께하는 우리 옛이야기>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 놀고 또 글을 만들때도 함께 협동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갔구나 라는 생각에 대견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공연 날도 저는 아이들에게 즐겁게 무대 위에서 놀자, 라고 거듭 말했고 역시 아이들도 무대 위에서 30분이 넘는 작품을 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아이들이 30분이 넘는 작품을 무대 위에서 집중해서 자신의 등장과 퇴장 후 옷을 갈아입는 것까지 스스로하기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첫 공연에서 그 모든 것을 힘들어 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그것은 작품에 몰두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아이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우리아이들이 꿈다락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성장하였고 커가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서 예술경험이 문득 고개를 내밀어 아이들을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5회차를 진행하는 동안 매일 아침 아이들 행거서 보내주시신 부모님께 감사의 드리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신 당감 복지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남은 한해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김은정 기획자

일반형 23

예술연구소 두드림

무용을 기반으로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과정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예술단체입니다.



꿈틀꿈틀 DNA

무용을 기반으로 미술, 애니메이션의 통합예술 프로그램으로 참여과정 속에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무용으로 나와 타인을 제대로 인식 및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발견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Table with 2 columns: 장 르,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대상. Content: 무용(무용+애니메이션), 2018. 4. 21. ~ 2018. 12. 1.,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4),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단체명: 예술연구소 두드림
문의처: toe0327@hanmail.net

홈페이지: cafe.naver.com/Dodreamcompany

현장스케치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나의 향기, 색, 생각 등 다양한 DNA 탐색 후 감정을 색+소리+움직임+공간을 이용하여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므로 다양한 감정들을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Picture-map을 통해 꿈, 희망, 소원, 하고 싶은 것 등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한 뒤,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하나의 상상 속 우리들만의 이야기 만들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듯이 상상 속 우리들의 이야기도 하나가 되는 시간들. 소품, 움직임, 역할 등 함께 만들어 영상이 되고, 춤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 중 픽실레이션 영상촬영 제작했다.



예술적 감각 깨우기

공연예술(현장학습)을 통해 무대장치(미술), 조명, 음악, 안무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한 예술적 감각을 깨우기. DNA 속에서 꿈틀거리는 예술적 감각을 자극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것을 미션활동을 통해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춤으로 창작해보는 시간



현장스케치

움직임 활동으로 나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

작은 꿈틀거림으로 시작한, 잠재되었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들... 친구들과 함께 움직임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 및 가치를 예술로 재발견



담당자 후기

'꿈틀꿈틀 DNA'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또래와 함께 소통·공감하며, 움직임을 기반으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일상에서도 다양한 예술적 자극을 통해 자신의 모습과 감정 및 생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다락 수업을 접하면서 설레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연령도, 학교도, 지역도 다른 아이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예상외로 몸의 움직임과 함께한 통합예술수업을 하면서 서로간의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보고 지도하는 강사로서 부듯함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수광 기획자

김지선 주강사

일반형 24 바오마루

〈바오마루〉는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전문단체입니다. 교육현장과 예술현장의 다양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성 향상에 중점을 둔 놀이·체험형 교육을 지향합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 확대 및 예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만화·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표현으로는 미술, 공예, 영상 그리고 장르로는 스토리텔링, 미디어, 역사와 국어,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접목하여 교육향유자에게 잠재력 확대 및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애니팩토리- ONLY FUN!

대중적이고 시각적이며 전달력 강한 메시지를 가진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와 미술, 영상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표현의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장 르 통합 (만화애니메이션, 미술, 공예, 영상)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2. 1.
교육장소 부산 수영성 마을박물관
교육대상 초등학생

단체명
바오마루
문의처
wood8485@hanmail.net
홈페이지
cafe.naver.com/baomaroo

현장스케치



지역 스토리텔링

우리 지역 알아보기의 활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 및 가까운 곳을 문화와 역사 그리고 활동의 스토리텔링을 경험하고 만들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평면에서 입체적인 표현의 결과물로 제작해보는 활동으로 각자의 스토리텔링에서 다양한 발상과 재미있는 상상으로 표현하고 제작해 보았던 활동입니다.



작품전시, 체험활동

한 해 활동의 마무리를 학생들의 작품전시와 체험활동으로 진행 하였으며, 자신들의 작품과 친구들의 작품들이 모여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되고, 즐거운 체험활동으로 축제적인 의미를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담당자 후기

이러한 교육 활동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주제와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함께 찾아가고, 공감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들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누리며 느끼는 기쁨들이 담당자로서 활동의 가장 큰 의미 일 겁니다. 올 해를 통해 내년의 기대와 희망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우동 기획자

학생들과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좋았습니다. 마지막 활동의 작품전시 및 체험활동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뜻깊고 뿌듯했으며, 체험활동에서의 분위기와 학생, 가족의 참여가 성황을 이룰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감사로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주영 주강사

일반형 25 사단법인 행복두드림

단체명
사단법인 행복두드림
문의처
051-639-1300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심리상담과 교육, 문화체험, 재활 케어(CARE) 등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향상에 이바지하고, 여러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문화선진국의 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Back to the 조선'

동래의 역사를 활용한 새로운 창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새로운 'Back to the 조선'의 역사를 재창조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장 르 미술
교육기간 2018. 5. 12. ~ 2018. 11. 17.
교육장소 동래구 진로교육 지원센터 (동래구 시실로 129 3층)
교육대상 초등학교 5~6학년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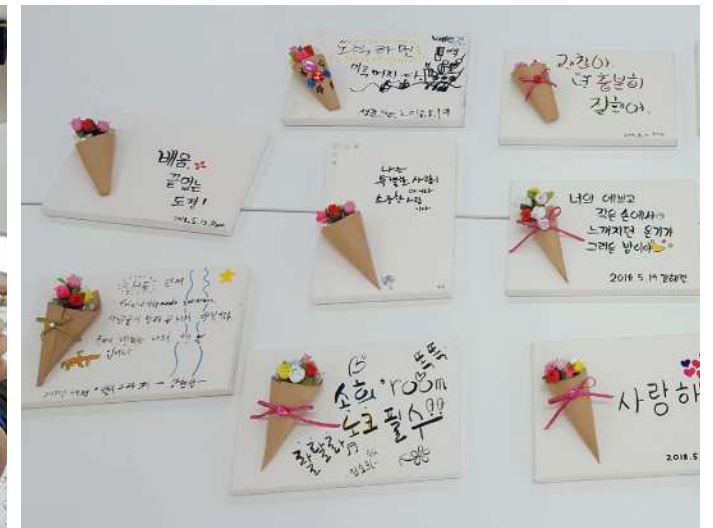
염색기법 배우기

홀치기 염색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과 재료로 무늬를 나타내고, 황토와, 컬러색상의 염료를 활용하여 나만의 손수건을 염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캘리그래피 액자제작

캘리그래피와 적용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픈 글귀를 선정하여 나의 명언이 담긴 캘리그래피 캔버스액자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현장스케치

움직임 활동으로 나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

스냅백을 직접 디자인하여, 실제 착용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창의적으로 꾸며 보고, 착용하여 자신을 뽐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담당자 후기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결과물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아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물을 보며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니 뿌듯했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프로그램의 보완점도 짚어 보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지 기획자

천방지축 아이들과 정신없이 보냈지만,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소중하고, 창의적인 생각들과 표현력이 제생각도 많이 바뀌어 놓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장유리 주강사

일반형 26

한국휴먼 교육개발 협동조합

한국휴먼교육개발협동조합은 미술심리치료, 아동발달, 부모교육 등 전문교육과 상담을 실행하는 6개의 사업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본 조합과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도예공방의 컨소시엄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들과 불건강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미술매체를 이용한 소통방법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다빈치아트캠프

다빈치 아트캠프 (Da Vinci Art Camp)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미술교육활동으로 선진국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표방한 미술전문교육문화예술과 자연친화적 놀이를 통해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빈치 아트캠프 교육은 전문가들(대학출강 및 미술영재원 강사진)로 구성되어 본 프로그램의 계획을 고민하였고, 도심 속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시민공원 내의 문화예술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체험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을 전개합니다.

장 르 미술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24.
교육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73 문화예술촌,도예공방, 금속공방
교육대상 10세~13세 아동 및 부모는 모 10가족

단체명 한국휴먼교육개발협동조합

문의처 051-504-5007

현장스케치

집 만들기

부모와 아이의 의견조율의 통하여, 도자기로 즐거운 우리집 만들기를 한다.

- 1.준비된 집 모양의 점토 형을 만들어 각기 2개씩 배분하여 준다.
- 2.부모와 아이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우리가 꿈꾸는 집을 만들게 한다.
- 3.강사의 지도하에 도자기 기법의 활용하여 흙을 붙이고 자르면서 형태를 만들도록 한다.
- 4.마지막 단계에서 백색화장도를 활용하여 집을 장식하도록 한다. 완료 후 각자 가족이 만든 작품을 서로 보여주고 감상하면서 발표하는 소통의 장을 연다.



시민공원 도심백사장에서 가족별로 모래집 만들기

야외에서 하는 가족놀이로 서로 소통하고 합심하여 주어진 시간에 모래집 완성. 가족 간에 매체를 이용하여 체험해 봄으로써 아이들과 관계회복과 소통에 좋은 경험을 축적하게 한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즐거운 놀이에 부모가 동참하여 아이들과의 새로운 활동을 통한 결과물이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속의 영감을 길러줄 수 있다.



현장스케치

작품전시

12회차에 걸친 수업현장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홍보한다. 본인이 만든 작품을 전시를 통하여 소중함을 일깨어주고 성취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담당자 후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융합 미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과정에서 혹시나 지루하거나 힘들어 할까 조바심을 낸 기억이 난다. 다행히 아이도, 부모님도 다들 즐겁게 수업에 임하였고 마지막 수업 후에 아쉬움을 나타내어 안도하였다. 참여했던 부모들도 아이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평소 미술에 알레르기를 느끼던 아이가 너무 즐거워서 주말만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서, 힘들었지만 즐거운 날이었던 것 같다. 같이 해준 선생님들과 부모님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세훈 기획자

일회성의 체험프로그램이 아닌 정기적인 가족체험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진행되어 조금 더 참여자들과 친밀감이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가족구성원들과 아날로그적인 미술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공동목표를 위하여 같이 협동하는 활동은 더욱 권장되어야 할 것 같다.

홍찬일 주강사

일반형 27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인 부산

단체명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인 부산

문의처
4youhan@hanmail.net
army1424@gmail.com

홈페이지
www.facebook.com/artdawon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 '문화예술교육사' 및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기획자 및 강사들로 구성된 전문단체로서 문화예술 기획, 연구, 창작, 공연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하며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 복지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와 사회공헌 활동을 실행하고 활발한 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예술통합 단체입니다.



‘별! 별! 우리 문화, 풍습 리턴즈>Returns)’

우리 생활 속 '24절기와 세시 풍속'은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나누고, 우리 조상들은 절기에 맞춰 세시 행사를 전승하며, 삶의 여유와 풍요를 더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전통과 과학(별자리)을 접목하여 다양한 풍습을 공동체적 예술 활동 (무용, 미술, 음악)을 통해 체험하고 즐겨보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무용+미술+음악+과학)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2. 1.
교육장소 서구 보동길 278번길 15 닥밭골 행복문화나눔터 1층 (동대신동 2가 80-1)
교육대상 초등학교 1~6년

현장스케치

단오부채만들기

단오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다양한 민속놀이와 먹거리를 함께 나누어 먹었던 의미 있는 큰 명절이다. 단오가 끝난 직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 단오부채를 만들어 선물을 했다는 풍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담은 단오부채를 만들어 선물해본다.



전통놀이

첫! 만남, 24절기와 세시풍속에 맞는 전통놀이를 통해 라포 형성 및 또래와의 관계 맺기를 한다.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발현해본다.



현장스케치

전통과 과학의 통합교육

절기, 세시, 별자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전통과 과학의 통합 교육을 미디어를 통해 접근한다. 계절의 변화를 24절기로 나누고, 그 변화에 따라 별자리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을 태양의 운동에 근거한 과학적인 반복 활동을 이해해본다.



담당자 후기

예술로서 모든 감각을 일깨워주는 꿈다락 프로그램을 통해 서구 지역 아이들에게 재미난 풍습을 전달하고 싶었다. 1기와 2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달된 과정들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바래본다. 훗날 꿈다락과 함께한 아이들이 커서 2018년 우리 단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 좋겠다.

이교운 기획사

지난 8개월간 매주, 매시간 작품의 주제에 따라 탐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1기와 2기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단체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준 아이들과 학부모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24절기를 체험하고 과학을 접목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기꺼이 함께 즐겨 준 40여명의 아이들과 주·보조·특강 강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유한 주강사

일반형 28 도시농업공동체 팜파크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콘텐츠 개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말농장, 공작소, 전통주 만들기 등 도시농업과 전원생활을 위한 정보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가드닝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형태의 화분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식물의 생육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생태학습을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미술(공예)
교육기간 2018. 4. 16. ~ 2018. 12. 1.
교육장소 팜파크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66-2)
교육대상 초등학생과 가족

단체명 도시농업공동체팜파크
문의처 051-513-4797
홈페이지 facebook.com/farmpark.kr

현장스케치

자루뒤틀발을 만들기 위한 강사님의 설명과 설계그림을 그리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



현장학습 인근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수거



버려진 물건에 들꽃으로 스토리가 있는 미니정원



담당자 후기

팜파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단 보조금사업에 교육의 질적인 부분보다는 공간이 가진 한계와 행정업무의 미숙함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하였습니다. 회차가 거듭하면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교육장 환경에도 너그러운 기분 좋게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정중훈 기획사

‘업사이클’이라는 조금은 낯선 개념을 가족단위의 팀이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은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숙한 진행에도 즐거운 수업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사로서 수업준비를 개을리 한 것 같이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강사로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마음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시간을 통해 대화와 토론의 자세에 대해 가족들이 충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으면하는 바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민욱 주강사

일반형 29
극연구집단
시나위

‘극연구집단 시나위’는 배우 중심의 극단으로 배우들의 하고자하는 열의를 중점으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 뜻을 보여 주는 극을 만들어보고, 후진양성의 기회 및 일반시민들에게도 연극 또는 교육 참여의 기회를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품선정 사전에 배우들의 자체적으로 형성된 스테디그룹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토의 또는 즉흥놀이극 등을 통해, 하나의 주제성을 띤 극으로 승화시킵니다. 시나위는 현재까지 정기적인 연극교실을 운영해 20기째를 거쳤으며, 최근 창작 작품 활성화에 발맞추어 창작품을 위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 시나위 연극학교 : ARTISTIC PLAY! (예술로 놀자)

세계의 다양한 연극 메소드(method)교육, 미술체험, 역사 문화재 체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과중심이 아니라 과정중심의 교육으로써 세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표현해 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장 르	통합(연극+미술+역사)
교육기간	2018. 5. 12. ~ 2018. 11. 24.
교육장소	극연구집단 시나위 연습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5번가길 8-9 한사랑아파트 상가동 지하)
교육대상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

단체명
극연구집단 시나위
문의처
070-8612-5244
홈페이지
cafe.daum.net/lovesinawi

현장스케치

발레리나 김옥련 초청

특별강사로 발레리나 김옥련을 초청하여 발레리나로서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들어보고 '춤'이란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간단한 발레 동작을 함께 해본다. 학생들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몸으로 표현해본다.



국제일제강제동원역사관 현장학습

부산시 대연동에 위치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현장학습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성립 및 전쟁의 참상과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참혹했던 선조들의 삶과 현재 나아가갈 인권의 방향성에 대해 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장스케치

공연

현 시간까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던 동작들과 학생들 개개인의 창의성을 결합여 총 3부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였는지 나아가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담당자 후기

20년동안 해왔던 시나위 여름연극학교 프로그램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서 확장시켜 해 봤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청소년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우리의 시도가 공연 예술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상규 기획자

〈“무엇을 하며, 어떻게 놀아야 할까?”, ‘플래쉬 몹’, ‘짧(영상)’의 바쁜 호흡과 집중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을 대체시켜 줄 만한 놀이를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컨텐츠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매주 한번 6개월이란 길게 늘어진 기간 동안...?〉 처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획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자, 끝나는 날까지 고민했던 화두였다. 가르쳐서 습득시키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쉬웠으면 자발적으로 놀고, 나누고 학습할 수 있게 교육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럴수록 더욱 예술이라는 장르가 그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사회적역할을 해야 함을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물어보면서, 역할론과 방법론 사이의 괴리감을 어른으로서, 예술업에 종사하는 일인으로서 많이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성취감과 보여주기 위한 결과론적 교육법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기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강태욱 주강사

일반형 30
문 댄스
프로젝트 팀

단체명
문 댄스 프로젝트 팀
문의처
mlu623@hanmail.net

문 댄스 프로젝트 팀은 팀원 구성에서 언제나 뜻과 취지가 맞는 예술인들이 함께 작업, 실험, 연구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참여 예술인들의 장르와 전공에 국한 하지 않고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여 문화 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 실행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흥 비리 나가신다

흥이 넘쳐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서툰 아이들에게 친근한 단어와 자신들의 놀이 문화로 다가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사고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통이란 매개체를 가지고 현대의 음악, 의상, 스토리, 춤 등을 스스로 표현하고, 참여하는 수업이 낯선 우리 것과 익숙한 우리것 안에서 창의적 공동체를 형성해나간다.

장 르 무용
교육기간 2018. 5. 12. ~ 2018. 11. 4.
교육장소 인문학도서관 배움터 1
교육대상 초등학교 3~4학년

현장스케치



오방색

오방색을 배우고 오방이 우주의 행성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우주행성의 오방색을 통한 우주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몸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체험 및 관람활동

단편영화를 관람하고 직접 영화에 대한 체험 및 창작활동을 하며 영화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현장스케치

결과발표회

결과발표회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치어리딩 형식과 뮤지컬 형식 전동
을 결합하여 창작한 작품 시연



담당자 후기

아무것도 모르고 덩벼든 일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정작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또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 하였다. 매 수업 참여하며 힘이 들었지만 아이들의 만족하는 얼굴을 보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 하다. 실수의 반복으로 인해 많이 수정되고 많은 것을 배운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까지 실수가 연속되고 있으나 지금도 난 성장하는 과정이라 본다.

김선정 기획자

행복하다. 잘했다. 더 잘하고 싶다. 더욱 더 철두철미한 프로그램 구성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사업을 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움직임에 대한 전통에 대한 여러 가치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감사하다.

문나옥 주강사

일반형 31
부산평생
교육진흥회

1989년 사단법인 한국 지역 사회 개발 협회 부산 지부로 설립 되었으며, 현재는 부산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평생교육과 문화정착을 위한 사회운동에 이바지 해 온 단체이다. 성인문해교육, 전통문화, 인문학, 역사 체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래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내 고장 문화 지도 만들기)

인근 동래 지역의 문화유적을 탐방하여 알아보고, 이를 소재로 사진, 그림, 글, 점토, 판화 등 다양한 예술창작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과 함께 문화재를 탐방하여 역사적 사실을 같이 느끼고, 체험해보고, 예술창작을 통해 재 표현 하도록 한다. 가슴과 기억 속에 남은 역사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시켜(사진, 그림, 글, 점토, 판화) 내 고장 지도책을 완성시키도록 한다. 가족 간의 소통, 참여자간의 소통, 역사와의 소통을 창작 예술 활동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내도록 한다.

장 르 통합(미술+역사)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2. 1.
교육장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36번길 23 동광빌딩 5층
교육대상 1-6학년과 가족

단체명 부산평생교육진흥회

문의처 051-557-2765

현장스케치

클레어 창작

부드럽고 끈끈한 성질이 있는 클레어를 이용해 복천박물관 탐방 시 인상 깊었던 유물을 생각하여 만들어보는 예술 창작 수업이다.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몰입도가 높았던 수업이었다.



민속놀이 체험

조선시대 전형적 관아 건물로 부사가 공무를 처리하던 곳이 동래부 동헌이다. 이 곳에 마련되어 있는 관복의상을 입어보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모습이다. 참여자 모두 무척 즐거워했던 수업이었다.



현장스케치

2기 결과 발표회

그동안 수업시간을 통해 완성한 다양한 작품들과 활동사진을 전시하여, 가족과 함께 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념품으로 판넬 액자를 증정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수료를 기념하였다.



담당자 후기

참여자모집이 빨리 마감되어 출발이 매우 순조로웠고 참여자인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업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가족이 함께 참여한 문화재 탐방과 예술 창작 수업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 참여자간의 소통, 역사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과 달리 현장 속에 숨어있는 역사적 사실을 체험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함께한 가족들에게는 동래 유적지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일깨워 주었고,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예술을 역사와 접목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홍영식 기획자

양영환 주강사

일반형 32
모퉁이극장

단체명
모퉁이극장

문의처
051-468-1895

홈페이지
cafe.daum.net/lovesinawi

모퉁이극장은 시민관객들이 단순한 영화 소비자를 넘어 영상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관객문화운동단체입니다. 영화를 상영, 기록, 복원하는 시네마테크와 달리, 관객들의 목소리를 상영, 기록, 복원하는 시네마테크와 달리, 관객들의 목소리를 상영, 기록,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네마-피플-테크'입니다. 관객들이 어울리고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 활동을 응원한 국내 유일의 '관객 전용관'으로 모퉁이극장의 상영회는 관객이 저마다 고유한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관점을 경청하며 상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토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객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문화활동가로 발돋움하는 관객문화교실, 관객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고른 영화를 시민들과 함께 보고 관객의 영화사를 조명하는 관객영화제, 한해의 관객문화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객들의 밤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상상영화제, 공상프로그래머, 몽상관객〉

부산 유일의 청소년 영화프로그래머 강좌로 영화 한 편이 관객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하고 청소년들이 가진 생각들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매개로 영화제를 개최해 보는 특화된 수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일상 속 영화문화 향유를 돕고 영화 분야에 관심 있고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문화생산 주체가 되어 역량을 성장시키는 연간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국내의 국제영화제를 현장학습하고 지역의 소극장을 탐방하며 영화문화의 지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며 영화비평에 한걸음 다가갑니다. 영화제 기획서 작성, 영화제 섹션 구성과 상영작 선정과 이벤트 기획, 홍보 및 카탈로그 제작 등 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영역을 체험하며 청소년 영화프로그래머로서의 자질을 다져나갑니다.

장 르 통합(영화+문화기획)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17.
교육장소 모퉁이극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0계단길7 4층)
교육대상 청소년(중고생, 14~18세 청소년 누구나)

현장스케치

내가 상상하는 영화제 기획서 작성

'내가 상상하는 영화제' 기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음식영화제, 동물영화제, 여행영화제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으며 이러한 주제들로 영화제를 기획할 때 어떤 영화, 어떤 이벤트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질의응답으로 구체화시켰다. 청소년들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을 토론하여 선정하였다.



전주국제영화제 탐방

전주국제영화제를 탐방하며 영화제 카탈로그를 보며 직접 관람할 영화를 골라서 각자 원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예매를 하고 GV에 참여하여 영화 감독에게 질문도 하고 사인도 받았다. 숙소에 들어와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각자 본 영화에 대해 토론을 하며 우리가 함께 만들 영화제를 그려보았다.



현장스케치

상상영화제

상상영화제를 개최하여 친구, 가족들 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청소년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선정상상영화제를 개최하여 친구, 가족들 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청소년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선정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제 포스터도 직접 만들고 포토존을 꾸몄다. 독립영화 감독을 초청하여 GV를 진행하고 탭댄스 공연, 고민상담소 토크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하였다.



담당자 후기

입시와 진로, 진학에 스트레스가 극심한 청소년들이 학교 밖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자극도 받고 시야도 넓히면서 소통도 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우리가 청소년이었을 시절, 아쉬워하며 기다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의 청소년들도 갈망할 것이라 믿고 강사진과 함께 청소년들이 도전해 볼만한 멋진 영화제 프로그램 강좌 하나 만들어보자고 시작했다. 그것이 꿈다락 토요일 문화학교에서 청소년을 버릴 수 없는 이유였다. 하지만 처음엔 실제로 얼마나 모일까, 지속할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우려는 기우였다. 영화를 좋아하는 숨은 열혈 청소년 관객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자신의 재능과 끼를 영화를 통해 다양하게 발휘해보고 싶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영화 교양과 실력은 기대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영화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꿈다락 프로그램을 통해 멋진 장을 계속 만들고 싶다.

변혜경 기획자

영화를 좋아하던 제 청소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멋지고 훌륭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영화를 보고 소감을 멋지게 표현하는 친구, 프로그래밍에 출중한 친구,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이 강점인 친구, 사람들과의 소통과 친화력이 두드러지는 친구 등 함께 한 상상영화제 교실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열정과 의욕에 있어서는 이미 전문가였고, 조금만 코칭을 해줘도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가는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 주 한 주 눈에 띄는 변화가 인상 깊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도 자신이 무언가 잘 할 수 있을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던 친구들이 스스로 영화제를 개최해 본 성공적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과 향후 활동에 대한 동력을 얻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다. 수업시간 만으로 부족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자율적으로 영화선정도 하고 영화제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 영화를 매개로 왕성하고 참신한 문화 활동을 하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적극 응원할 것이다.

김현수 주강사

일반형 33
울파란

예술로서의 전통 음악을 지향하며 교육·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및 기획, 공연으로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가치 창출 및 지역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진소리

국악을 포함한 우리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정서와 감성의 예술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12회차 2기수로 운영 됩니다.

장 르 전통음악 (국악)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2. 8.
교육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로 575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단체명
울파란
문의처
070-7707-6830
홈페이지
http://yulparan.woobi.co.kr

현장스케치

악기 배우기

각 악기를 그룹별로 나누어 악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국악의 박자와 장단을 익히고 올바른 연주법을 습득하며 악보를 보는 방법을 익혀 가야금과 대금, 해금 등 각자 배운 곡으로 합주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실내에서만 우리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는 활동입니다. 경주국립박물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을 통하여 우리문화를 체득하고 참여자들끼리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배웁니다.



현장스케치

발표회

열심히 연습한 자신의 실력을 발표회를 통해 마음껏 뽐내는 활동입니다. 발표회를 진행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12차시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발표회를 홍보하고 진행하는 모든 역할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합니다.



담당자 후기

자체적인 예술교육사업은 진행을 많이 해봤지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이라 많은 착오도 있었지만 주강사 선생님과 보조강사 선생님들이 참여자들을 잘 이끌어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협력기관 측에서도 대단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는 율파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많이 부족한 기획자이자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부산문화재단의 꿈다락 토요문화 담당자 선생님들을 귀찮게 해드렸음에도 항상 친절히 잘 이끌어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율파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모두가 자신소리에 참여해준 참여자 친구들 전원이 우리 문화에 갖든 소중한 가치들을 잘 되새기길 바란다.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때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은 과연 학교 밖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될까 였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음악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 였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토요일 수업에 열심히 나오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 우리의 음악을 현장에서 직접 알리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된다면 우리음악문화의 전통을 유지함과 계승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거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음악문화를 쉽게 접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줄수 있어서 보람된 수업이었다.

엄창완 기획자

박지원 주강사

일반형 34 극단청개구리

단체명
극단청개구리
문의처
thirdhyun@hanmail.net

극단청개구리는 다년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들로 구성되어 유·아동 및 시니어 등, 눈높이에 맞는 개별화 차별화 된 인형극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성장기 아동에게는 올바른 인성함양의 견인차 역할을, 지역민에게는 감성적인 문화생활 향유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는 부산스토리 '그림자극 배움터'

지역의 설화(일산배기 마을의 장사바위)를 탐구 및 시나리오 각색, 스토리텔링과 그림자극으로 제작 및 연출, 지역 내 취약시설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그림자극
교육기간 2018. 4. 28. ~ 2018.12. 8.
교육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71
 (영도 어린이영어도서관내 4층 블루룸)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현장스케치

일산배기 장사바위 현장 탐방 학습

일산배기 장사바위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거인의 신발을 모둠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사바위에 얽힌 설화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거인에 대한 동네사람들의 고마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산배기 장사바위 그림자극 인형제작

참여 아동들이 등장인물들을 검정 색지와 색 셀로판지를 활용하여 자르고 파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림자극 인형 제작활동을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인 참여자세로 즐겁게 활동하였습니다. 모두들 뽐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거인의 신발 그림자극 공연

긴장감과 설렘으로 시작된 공연, 함께 소통하고 나누며 즐거운 공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성자극과 성취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담당자 후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설화를 알고,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림자극 인형도 제작하고 직접연출, 조작하며 동선도 익히고 힘을 합쳐 재미있게 연습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뻐습니다. 티격태격 의견 충돌도 보였지만 함께 협동하며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완벽하진 못해도 함께 만들어 소통하며 마음 나눈 공연이라 아이들 스스로도 부듯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조현미 기획사

‘그림자극 배우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았으며, 시나리오 작성과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산의 유래를 찾아 그림자극을 완성할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부산의 유래들을 새롭게 더 많이 접 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영진 주강사

일반형 35

드림교육센터

드림교육센터는 연극 전공자를 중심으로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활동해 오고 있다. 본 단체의 구성원들은 현재 문화예술분야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꼈던 문화예술 향유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보고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성장기에 향유하는 예술경험이 가져오는 긍정적 인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다양한 기획과 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화랑 함께하는 예술놀이터

동화랑 함께하는 예술놀이터는 작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미술, 연극 등 여러 장르의 독후 예술 활동으로 나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나와 우리의 의미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 장 르 통합(미술+연극)
-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2. 1.
- 교육장소 동화랑 놀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4학년

단체명 드림교육센터
문의처 070-8745-9776
aehya@hanmail.net

현장스케치

도서관 활동

도서관을 둘러보며 스스로 책 한권을 선정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개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은 소감을 작은 책으로 만들어 내가 만든 책을 소개하는 형태이다.



나도 영화 속 주인공(현장학습)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직접 영화예고편도 만들어보고 영화더빙에도 참여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해 보았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매체에 적응하고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 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현장스케치

도서관 속 작은 전시회(수업결과물 전시)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독서후기 활동 작품들을 도서관의 책들 사이에 전시하였다.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들을 전시 역시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



담당자 후기

우리 프로그램이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다니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반응을 해주시고, 활동내용을 함께 지켜보고 나누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간다면 마을 공동 커뮤니티의 문화예술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동화랑 함께하는 예술놀이터에 참여한 친구들은 다들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참 예쁜 아이들어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쑥스러워 자기이름도 큰소리로 말 못하던 친구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친구들과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말 그대로 무한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이 주는 좋은 영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봅니다.

조영애 기획자

이경아 주강사

일반형 36
극단여운

여운은 '아직 가지지 않고 남아 있는 운치', 또는 '떠난 사람이 남겨놓은 좋은 영향'이라는 뜻으로 '여운이 남는다.' 또는 '여운이 오래간다.'는 표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극단여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운을 남기고, 한 편의 추억으로 기억되는 작품들을 공연하기 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꿈을 꾀던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목표로, 표현에 대한 갈망을 그저 '꿈'으로 남겨두었던 이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꿈'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꿈을 찾을 기회'를 주고자 교육 연극, 캠페인 공연과 직장인들과 함께 하는 '청년워크샵'수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 주인공은 바로 나

뮤지컬 영화 제작을 통해 잠재된 예술성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최신 유행 뮤지컬 작품부터 고전 뮤지컬까지 다양한 뮤지컬 작품을 소재로 뮤지컬 과 연극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 르 연극
교육기간 2018. 5. 12. ~ 2018. 11. 24.
교육장소 지아트센터 (부산 남구 진남로 7-3 지하1층)
교육대상 초등학생 3학년 ~ 6학년

단체명 극단여운
문의처 thirdhyun@hanmail.net
홈페이지 https://rcloud.modoo.at/

현장스케치

자신의 개성대로 가면을 꾸미고, 소개하기



악보를 보며 뮤지컬 노래 배우기



여러 가지 감정 표현하기



광안리바닷가에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꿈꾸는 우리들' 촬영



부산문화회관 앞 공원에서 뮤지컬 영화
사운드오브뮤직 '도레미송' 촬영



현장스케치

11주간 진행 된 수업 & 활동 영상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촬영한 뮤지컬영화상영 및 뮤지컬 갈라쇼 공연을 조명, 음향과 함께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회를 진행



담당자 후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획부터 '뮤지컬 영화 주인공은 바로 나' 수업이 끝나는 동안 기획자로서의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 수업을 하며 처음 접해보는 핀마이크를 차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봄으로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뮤지컬 영화제작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기뻐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수현 기획사

그동안 중고등학생 뮤지컬, 연극 수업은 많이 진행했지만 초등학교아이들과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생소한 뮤지컬 영화 제작 경험을 줄 수 있었고 그 경험을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뒀했다. 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려주기 보다 예술을 즐기고 또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화 촬영이나 무대 위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들을 아이들이 경험해보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또는 새로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남해경 주강사

일반형 37
민요그룹 흥

단체명
민요그룹 흥

문의처
051-503-9501
kej7299@naver.com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을 흥이라고 합니다. 국악을 듣고 접함으로 흥이 일어나게 하도록 국악의 대중화에 앞서 나가며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가, 무, 악이 모두 어우러져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어린이 다온 국악대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국악기 가야금연주와 민요, 장구, 창극, 부채춤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 함께하는 즐거움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전통예술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0. 20.
교육장소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0-7)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현장스케치

수수깡 가야금만들기

수수깡을 이용한 가야금 만들기를 하였다. 학부모님과 함께 가야금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였으며, 가야금의 특징을 잘 살려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가야테마파크 현장 체험학습

학부모님들과 함께 한 현장학습으로 비가 많이와 인상 깊었던 현장 학습이었다. 학생들은 활 만들기 체험과 더불어 활을 쓰기 체험을, 학부모님은 목각 만들기 체험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장스케치

발표회

그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님을 초청하여 발표회를 가졌다. 가야금 연주와, 창극, 부채춤을 보여 드렸는데 실수들이 많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발표회를 끝으로 마무리 하였다.



담당자 후기

처음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여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시작 하였으나, 생각과 다르게 다문화 가정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과,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이나 일반 학생의 구분 없이 교육 사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음을 일깨워 줬던 수업이었다.

곽은진 기획자

가야금을 저 학년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에 설문조사를 하니 의외로 가야금을 내년에도 하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 학생의 생각과 교사의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

학생들이 가야금은 손이 아프니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싫어하는 내색을 많이 비춰 수업 진도를 일부러 천천히 나갔었는데 이번 설문조사와 수업경험을 토대로 다음번 수업에 꼭 참고 할 사항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았다.

김지우 주강사

일반형 38
더드림아트센터

단체명
더드림아트센터
문의처
allochoi@naver.com

모든 이들이 예술로써 자신의 꿈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활동을 하는 이들이 모여 문화예술의 교육과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 꿈다락 '파바팝 팝콘 AR'
: 예술냄비에 과학기름을 돌려 창의 팝콘을 튀기다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통합교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3D 기술과 입체영상 미디어 콘텐츠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만화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스토리 구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기술적 제작 방법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의 원리는 쉽게 이해하며 즐거운 과학의 세계를 경험한다.
- 만화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방식을 이용하여 3D입체 영상 콘텐츠를 이해한다.
- 직접 체험을 통한 영상 입체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입체영상물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지며 관련 직업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한다.

장 르 통합 (미술+과학)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1. 17.
 교육장소 40계단문화관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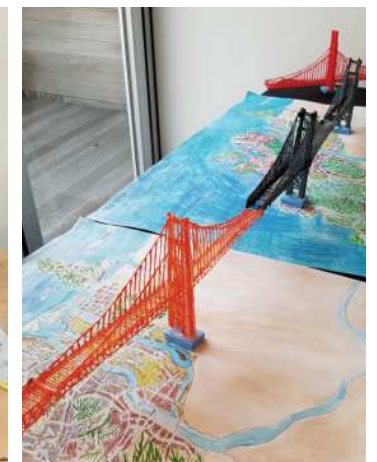
홀로그램

홀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하고, 피라미드 홀로그램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본다.



부산대교 디자인

세계에서 유명한 대교들을 살펴보고, 부산을 대표할만한 대교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그것을 3D펜으로 제작해 본다.



현장스케치

증강현실

증강현실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직접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동한다.



담당자 후기

작년에 처음 3D관련 수업과 과학융합수업을 꿈다락에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좀 더 욕심을 부려 3기를 모두 다른 수업으로 수준별, 단계별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어렵고 복잡한 수업을 기획하다보니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상으로 심도있는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훨씬 보람있었습니다.

최윤정 기획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매 차시마다 어떤 수업을 하실까 궁금해 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올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꿈다락 수업이 끝나자마자 내년에는 어떤 수업을 진행해 볼까 고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하고 즐겁게 수업하는 꿈다락 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박지영 주강사

일반형 39

DOT미술관

2017년 3월 개관한 DOT미술관은 '삶과 예술을 잇다'는 슬로건으로 관람객에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을 지양합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 부산대학교, 식물원이 인접해 있어 교통접근성이 편리하여 주민, 학생들에게 열린 공간의 미술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특징이 있으며, 4층의 건물로 교육 공간, 전시장, 문화 공간, 카페, 서점 등의 공간이 있다. 또한 3층의 '상상력 연구소'에서는 교육이 운영되며 빔 프로젝트,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교육실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있어 4계절의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여 학습자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시장과 서점의 공간을 활용하여 통합수업이 가능합니다.



작품으로 만나는 우리 (작가 연계교육프로그램)

미술관 전시를 심화한 교육으로 작가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연계된 활동을 경험하고, 확장된 사고와 정서적 함양을 키울 수 있는 통합미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장 르 미술
-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10.
- 교육장소 예술공간 DOT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35)
-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단체명 DOT미술관

문의처 051-518-8480 art_dot@naver.com

홈페이지 www.artdot.kr blog.naver.com/art_dot

현장스케치

작가와와의 대화

임주원 작가를 만나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작가와 대화를 통해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과정을 이야기 나눈다. 천, 그 외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미술의 표현기법과 소재의 다양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김스아트필드 미술관 방문

김스아트필드 미술관을 방문하여 전시하고 있는 작품을 감상하고 큐레이터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 개인 별로 작품감상 활동지를 작성한다. 미술관 공간을 탐색하고 주변의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대지미술 등)을 해본다.



현장스케치

전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전시를 작가가 되어 자신의 작품을 관람객(부모님, 지인, 친구 등)에게 소개한다. 학부모님들의 수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공유한다.



담당자 후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주된 목적이,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학교 교육으로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미술관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인 실물교육과 그리고 작가 연계 수업에 목적성을 두어 미술관을 쉽게 드나들고, 작품을 해석하고 보는 눈을 키움으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업이 된 것 같아 좋았고,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의미 있는 수업이 된 것 같아 부듯했다.

아이들이 가장 흥미워 했던 부분이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그린 작가를 직접 만나보고 또한 그 작가와 다양한 창의적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미술이라고 하면서 해봤던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오브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만족스러워 했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기법이나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재미를 알게 해 준 수업이라 좋았다.

김수아 기획자

박미숙 주강사

일반형 40 꿈꾸는 베프

단체명
꿈꾸는 베프
문의처
chukbae@naver.com
홈페이지
blog.naver.com/chukbae

배리어프리 문화예술단체 '꿈꾸는 베프'는 2016년 12월 배리어프리 화면 해설작가 모임으로 결성되어, 현재는 배리어프리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배리어프리 문화예술단체로 활동 중이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사회의 장벽 없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배리어프리'의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원정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편견 제로! 배리어프리 원정대는 배리어프리 문화예술통합교육으로, 장벽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배리어프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다. 장애인 특강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애 공감교육부터 배리어프리 화면해설 작가 수업, 점자 및 수화 배워보기, 문화 예술 공간 접근성 조사 현장학습 등 만들기, 글쓰기, 체험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장 르 통합 (미술+체험)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2. 1.
교육장소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64 화목데파트 지하1층)
교육대상 초등학생 전학년

현장스케치



장애 공감 특강

장애 공감 특강으로 장애인 특강 강사 2명과 함께하는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1교시에는 시각장애인 선생님에게 직접 듣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각장애 체험이 진행되었고, 2교시에는 모든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조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8 장애인미디어축제

2018 장애인미디어축제를 체험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인 영화의전당을 방문하여 장애인 접근성 조사를 직접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점자블록 설치 미비, 엘리베이터 음성 안내 부족 등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스케치

배리어프리 원정대 수료식

배리어프리 원정대의 수업 결과물을 공유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원정대 수료식. 모든 학생들이 장기자랑을 진행하여 끼를 뽐냈고, 배리어프리 원정대를 함께한 소감을 나누며 진정한 배리어프리 원정대원이 되었다.



담당자 후기

배리어프리라는 주제가 낯설어 매년 학생들을 모집하는 시기 마음을 졸이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눈에 띄게 성장한 아이들을 보며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2018년 1기 학생들은 개성이 넘쳤고, 2기 학생들은 애살이 많아 너무 다른 두 기수를 치렀습니다. '배리어프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2019년을 기대합니다.

엄다인 기획자

사회적으로 배리어프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과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교육을 어린 학생들과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보람되고 뜻깊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반심반의 하면서도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차시를 진행할수록 더욱 서로를 배려해가는 모습이나 더불어 가는 사회에 대한 생각이 커져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 또한 놀랄 수 밖에 없었고, 부모님들의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런 교육은 여러 연령층에 걸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육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획자님과 대표님,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신 보조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곽재아 주강사

일반형 41
사단법인
문화예술
인적자원
개발센터

단체명
사단법인) 문화예술인적
자원개발센터

문의처
whahn@silla.ac.kr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는 민·관·학을 연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시킴으로써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는 문화·예술적 자원을 기획·개발하고, 해당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꾸준히 재교육 시키는 일, 기반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조적 파트너십을 맺는 일 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연극 young상(像)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영상촬영으로 영상촬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손쉬운 접근으로 문화예술이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적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 뉴스, 신문 등 매체에서 접하는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한 내용을 다양한 영상기기로 기획, 촬영, 제작하여 문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 미술, 영상, 연극의 분야를 접목시켜 흥미 있는 형태의 교육방법을 통해 문화 예술 소양을 함양시킵니다.

장 르 통합 (미술+미디어)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0. 27.
교육장소 티엘갤러리, 미라클사회서비스 센터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현장스케치

영화, 영상, 문화 축제

어린이와 청소년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국내 대표 영화, 영상, 문화 축제에 참여 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환경과 영상 문화 수준을 경험 해 본다.



나만의 카메라 디자인

VINTAGE&RETRO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카메라를 디자인 제작하여 본다.



현장스케치

피날레

그 동안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발표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업을 마무리 한다.



담당자 후기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줄 순 없지만 토요일 수업만큼은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카메라로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크기는 얼마나 클까? 아이들과 서로 질문하고 함께 느끼며 공유하고 공감하다 보면 3시간의 수업시간은 너무나 짧고 아쉽지만 그 속에서 학생과 내가 서로 성장하고 배워감에 매번 감사한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과 낯설지만 먼저 서서히 다가와 준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 떠오른다. 길 것만 같았던 수업의 끝, 처음 보는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질문하던 모습, 캠코더와 카메라를 들고 서로 영상을 찍어보겠다는 모습, 더 알려주고픈 욕심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참견도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후회가 들기도 한다. 굳은 날씨에도 곳곳하게 웃으며 와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 가득한 모습에 때론 내가 감동 받은 했다. 이번 수업으로 나 또한 아이들을 통해 한 뼘 성장하고 더욱 에너지 넘치는 열정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김미영 기획자

서진실 주강사

일반형 42
바투아트

단체명
바투아트
문의처
051-727-8758
홈페이지
www.batooart.com

바투는 '더 가까이'란 순 우리말로 국, 내외로 오랜 시간을 시각예술의 현장에서 활동해 온 기획자, 예술가, 문화예술 교육가,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중과 함께 예술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융합형 문화예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학은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철학으로 창의력과 인성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학문이다. 바투아트는 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굳어진 감각을 말랑하게 만들고 사회에 올바른 감성과 정서를 형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결과 중심의 미술 활동이 아닌 과정 중심의 미술활동으로 정서적 교감, 체험 및 오감을 활용한 감각적 활동, 사고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책 속 주인공 = 나'로 대입시켜 이야기 속의 상황들을 토론, 예술 활동으로 간접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나 자신'을 탐색하도록 유도하여 감성철학교육인 feeling text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격차해소를 줄여 균등한 문화발전에 큰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Good 세라의 상상키친

〈Good 세라의 상상키친〉은 갑자기 큰 시련을 겪게 되는 주인공 세라가 상상력을 단순 환상이 아닌 현실을 이겨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현실을 극복하게 됨. 참여아동들은 자신의 상상력이 하나씩 실현되어 현실에 반영되는 과정을 배우면서 긍정적인 사고관, 창의적 발상의 시각화를 기를 수 있게 합니다.

장 르 통합 (문학+ 미술)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2. 2.
교육장소 바투아트교육장, 대룡마을일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대상

현장스케치

모듬별 식탁을 덮을 식탁보 꾸미기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 다스리는 자기체면 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명상해보기후 모듬별로 식탁을 덮을 식탁보 꾸미기의 컨셉을 의논 후 스케치 하여 예쁘게 꾸미기를 하였다.

자기 자신이 잘했던 부분을 얘기 나누고 칭찬후 나를 위한 상장만들기 및 모듬별 텃밭 식물 관리 및 쿠폰기입장에 총액 계산후 음식을 정하고 식자재 구입 리스트 작성 및 초대장을 만들었다.



텃밭 식물 가꾸기

2부에서 모듬별로 상상키친이라는 공동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자연 속에서 상상키친 때 사용되어질 식자재를 직접 키워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직접 텃밭 가꾸기 활동을 매회 활동하였다.



Good세라의 상상키친 오픈

각자의 상상력을 모아 오픈한 키친은 상상력이 환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직접 재배한 식물과 함께 음식을 직접 만들고, 직접 차려 학부모들을 초대하여 상상키친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 자신이 잘했던 것을 스스로 칭찬하고 상장을 만들어 수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장스케치

결과발표 전시회

1,2기 모두 활동한 작품들을 바투아트팜 갤러리에 전시하여 아이들이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전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며 추억의 영상을 감상하여 관람자들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담당자 후기

Good 세라의 상상키친은 소공녀 세라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상상력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낸 책 속의 주인공 소공녀 세라처럼 아이들이 매회 수업을 거치면서 초등 전 학년이지만 서로 협동하고 협심하면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밖이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서로 의논하면서 찾아가는 친구가 아닌 동생들도 챙겨주면서 이끌어 주는 모습이 대견하고 뿌듯했다.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상상력으로 분명 극복해내고 긍정의 에너지로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성장된 모습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제성화 기획사

‘나는 어디든 상상하며 갈 수 있는 예술가야.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이것은 방학과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업에 몰두해야했던 가난한 유학생시절, 스스로 힘을 내게 해주었던 마법 같은 주문이었다. 그리고 이 마법은 어린 시절 소공녀 세라에게서 배운 비법이기도 했다. 내가 힘들 때 위안을 받았던 이 마법 같은 상상의 힘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Good세라의 상상키친>은 매 수업마다 나에게 이 마음이 아이들에게 꼭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고 그래서 가르치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하나하나가 무척 크게 와 닿았다. 또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바투아트팜의 굿세라를 기억하면서 용감하게 이겨내 주는 것을 상상하면서 나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이 생겨 감사하다.

임현희 주강사

일반형 43
상상편집소 피플

길에서 만나는 예술, 지역을 품은 문화프로젝트로 영상콘텐츠 제작, 생활 밀착형 문화프로젝트 기획, 문화예술교육 등 전 국민 보편적 문화 향유를 위한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동시대와 호흡 할 수 있는 미디어 나눔을 실천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마을을 방랑하는 꼬마 김삿갓

아이들은 마을을 방랑하며 공간을 탐색하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찾아내고 놀이, 미디어, 사진, 글쓰기 등 다양한 예술도구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일원으로 성장합니다.

- 장 르 통합 (놀이, 미디어, 인문학)
-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24.
- 교육장소 온천제일지역아동센터
- 교육대상 초등학생 1학년 ~ 6학년

단체명 상상편집소 피플
문의처 ssang_p@naver.com
홈페이지 facebook.com/sangsangpeople

현장스케치

나의 몸에서 나는 소리

아이들과 소리를 매개로 마을과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나의 몸에서 나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우리 몸에서 나는 소리 찾아서 직접 소리를 만들어 서로에게 들려주며 맞추어보았다.



지하철여행

3조로 나누어 아이들과 지하철여행을 떠났다. 에스조는 길을 찾기로 한 친구가 길을 잘 찾지 못하고 헤매자 다른 친구가 길을 같이 찾아주기도 하고 신나는 아이들 모듬은 보수동 책방 골목에 들러 책을 사기도 하고 강릉시장에 가서는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다. 럭키 7조는 미션 장소가 송상현 광장이었는데 미션을 놀이로 정해 실컷 뛰어 놀 수 있었다.



현장스케치

할아버지 나무

새벽 동이 트기 전 졸린 눈을 비비며, 추운 날씨에도 거의 모두가 약속된 시간에 모여 함께 할아버지 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랐다. 몇 명의 꼬맹이들은 잠도 덜 깨고 춥다고 올라가지 않으려 했는데, 센터 선생님들의 설득으로 나중에는 모두 함께 올라갔다.



담당자 후기

마을을 방랑하는 꼬마 김삿갓은 일상 속, 삶의 공간 속에서 예술을 매개로 경험의 지층을 쌓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문학, 놀이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호기심을 느끼고 스스로 질문하고, 움직이고, 변화하도록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능동적 삶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상상편집소 피플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친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적 예술 활동을 통한 지속적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낯선 우리에게도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 친구들과 일 년을 함께 지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친해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뛰어들고 안기며 인사하던 아이들, 쉬는 시간에 장난을 치던 아이들, 밖에 나가면 손을 잡아 오던 아이들 덕분에 일 년 동안 토요일이 즐거움으로 가득 했습니다. “혼자 못 하겠어요.”, “저 이런 거 잘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작은 손을 꼬마락 거리며 혼자 열심히 무언가를 완성하고 서툰 친구들을 도와주며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이들이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주변을 둘러볼 줄 알고 주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가연 기획자

김진희 주강사

일반형 44 세상과 소통하기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층별·생애단계별 맞춤형 학습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모든 계층 학습자들 스스로가 예술경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사들보집행 4 - 영웅들이 돌아왔다

부산의 인물을 중심으로 시대상을 추론하고 노래로 근현대사를 이해함

- 개항기 동래시장과 박차정 생가, 만세운동, 압록강행진곡 등으로 근대와 일제강점기를 이해함
- 백산기념관과 안희제 생가 탐방을 통해 애국지사의 삶을 되새김.

부산의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미디어로 재현함

-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들로 애국지사들의 삶의 의미를 추론해보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재해석

장 르 통합 (역사+미디어)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17.
교육장소 부산학부모지원센터 배움 2실
교육대상 초등학교학년과 학부모

단체명
 세상과 소통하기
문의처
 051-570-7199
홈페이지
 세상과 소통하기 연구소
 cafe.naver.com/ygs0604
꿈다락 세상과 소통하기
 band.us/band/60579969

현장스케치



밀양 박차정 묘소 탐방

박차정 생가 방문 후에 밀양의 독립 기념관과 의열단 거리를 탐방하였다. 오후에 박차정묘소를 참배하면서 박 차정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해 본다.

놀이로 즐기는 역사

아직은 어색한 학습자들간의 땅따먹기를 통해 몸을 풀고 전지에 지우개로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 규칙을 설정하게 하여 침략자에게 유리한 땅 넓히기를 놀아보았다.



백산 영화제 시사회

2기의 백산 관련 영상을 영화 시사회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팀 마다 독립지사의 열정을 담은 붉은 색을 드레스코드로 입장하게하고 영상 시사회- 배우와 감독과의 대화-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타 팀들은 기자가 되어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직접 대답해줌으로써 현장감과 작품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담당자 후기

부산을 중심으로 근현대를 보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미디어로 제작해보고자 했다. 수민동락과의 긴밀한 연구가 조금 아쉽지만 우리지역의 박차정과 안희제를 알게 되고 새기고 표현하게 되어 의미 있었다. 박차정 묘소에서 찾은 약산 김원봉의 삶과 백산생가에서 체험한 일제통치는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오래 남는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양근숙 기획자

화석이 된 역사적 인물들을 현재로 불러내 그들의 지난한 삶속에서 느꼈을 인간적인 감정들을 상상해보게 하는 작업이 의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젠 동래시장에 가면 시장의 맛난 간식 외에 박차정 열사의 생가를 한번쯤 머리에 떠올리게 되기를 의도했습니다. 의령 망개떡을 먹으면서 백산 안희제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던 동지들과 나눠먹었다는 역사적 사실 한 구절을 몸으로 기억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역사와 마주하며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비로소 역사는 현재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조강미 주강사

일반형 45 스트릿무브먼트

단체명
스트릿무브먼트
문의처
streetmovement@naver.com

스트릿 무브먼트는 2013년에 설립된 문화 기획 및 공연, 스쿨, 전문 제작사업입니다. 스트릿 댄스, 힙합댄스의 진정성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스트릿 댄스 공연 문화의 다양화를 위해 년별 공연과 다양한 소재의 퓨전공연 등 스트릿 댄스 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스트릿 댄스 문화의 전달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우리는, 스트릿 댄스 공연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단체입니다.



Break Time

스트릿 댄스 속 인문학 요소를 중심으로 예술을 통한 교육실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reak Time은 2016년 문화예술교육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스트릿 댄스 외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에게 그룹별/개별 멘토링 및 간단한 기구를 활용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 르 스트릿 댄스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1. 17.
교육장소 SOUL BOX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로 12번길 45, 지하1층)
교육대상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3학년

현장스케치

김일환 교수님의 특강수업!

한국 최고의 힙합댄스 팀 고릴라 크루의 김일환 교수와 나누는 춤 이야기 꿈 이야기 수업으로 프로그램 초반 학생들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춤추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부산에서는 쉽게 만나지 못하는 김일환교수의 수업으로 단순한 춤이 아닌 인생에 대해 배우고 느끼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경주로 떠나요~

예술 찾기 춤 찾기의 주제로 학생들과 경주탐방에 나섰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자연이 있는 곳에서 예술을 찾아보고 꿈다락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정동극장에서의 공연관람까지, 학생들과 야외활동에서 예술을 찾고 춤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스케치

서로의 꿈을 응원한 졸업식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그동안 우리는 함께 땀 흘리고 노력했다. 같이 노력한 친구들과의 마지막시간. 서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마지막 시간이 진행되었다.



담당자 후기

지원사업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 늘 자원을 바라고 기대려 고만 하는 사업?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사업의 의미는 확고합니다. 독립,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가 성장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시간. 이 시간들로 오늘의 저희가 있습니다. 꿈다락을 4년간 운영해오며 많은 성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00여명의 학생을 만날 수 있었던 꿈다락 토요일학교 사업은 저희에게 큰 가능성의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예술을 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늘 정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부산문화재단 및 부산의 많은 예술교육 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동건 기획자

좋은 기회로 꿈다락 토요일학교 사업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리트뷰먼트가 생각하는 춤이라는 예술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춤을 통해 삶의 활력과 인생의 많은 결정에 힌트를 주는 수업이라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큰 성장을 이룬 한해입니다. 믿고 응원해주신 서동건 기획자님, 김성원 주강사님, 함께 노력해준 박주현 보조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동호 주강사

일반형 46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대표 허아람)은 2004년 8월28일에 설립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입니다. 인디고 서원의 서가에는 '문학, 역사·사회, 철학, 예술, 교육, 생태·환경' 6가지로 분류한 서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습서나 대형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이 만든 베스트셀러는 없습니다. 글로써 사람을 키우는 인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청소년들의 내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좋은 책들을 선별해 놓은 책방입니다.

인디고 서원은 책과 청소년을 잇는 고리로서 다양한 행사와 출판 활동을 통해 이 땅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책읽기 문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는 장(ground)이 되고 있습니다. 인디고 서원은 늘 새로운 인문적 장을 꿈꾸는 열린 공간입니다.



인디고 에디터 스쿨 - 청소년 책 만들기 프로젝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만드는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 장 르 인문학, 출판
-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2. 1
- 교육장소 인디고 서원 (부산 수영구 수영로 408번길 28)
- 교육대상 중, 고등학생

단체명 인디고 서원

문의처 051-628-2897

홈페이지 www.indigoground.net

현장스케치

책 한 권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책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매주 인디고 서원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인쇄 현장방문

10주 동안 만든 출판물이 어떻게 인쇄되어 나오는지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출판사 편집실 견학하여 편집·디자인하는 모습 견학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책으로 만들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요. 중앙동에 위치한 인쇄 단지에 방문, 인쇄되는 과정과 담당 전문가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현장스케치

출판기념회

학원가의 중심에 있는 인디고 서원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청소년이 지나갑니다. 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11주 동안 배운 내용을 전시회, 낭독회로 기획하고, 참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권의 책이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스스로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담당자 후기

〈인디고 에디터 스쿨 - 청소년 책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책 만들기를 위해 매주 강의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나 자신을 비롯한 친구, 가족, 사회와 환경에 대해 수많은 물음을 던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마지막 차시에 소감을 나누며 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학교보다 더 좋은 토요학교", "학원 같지 않아서 오기가 좋았어요"라는 말입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질문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단지 답을 구하는 방식만 들을 뿐입니다.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고, 그 답을 책으로 써내며 공부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소감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물음을 던지면 선하고 정의로운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정다은 기획사

〈인디고 에디터 스쿨 - 청소년 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40명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책을 펼치기 어려운 시절이지만, 아이들은 매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면서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성찰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외향적으로 예쁜 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그 책 속의 내용을 채우는 일이고, 책 한 권에 담겨 있는 생각들을 다시 현실로 꺼내어 변주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함께 느꼈습니다. 편집자(에디터)는 단순히 책을 교정하고 출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짓는 작업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이 마음 깊이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윤영 주강사

일반형 47
(재)고은문화재단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예술 인프라를 부산지역에 구축하고자 설립되었다. 지방 최초의 사진 전문미술관으로 사진 문화의 대중화를 이끌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카메라로 바라 본 “나, 너, 우리”

사진이란 매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 너, 우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진의 의미, 역사, 원리를 이해하며 다양한 사진 촬영 및 수업 과정을 통해 흥미를 고취시켜 문화 예술의 관심을 넓히고 지속적인 활동의 기반을 넓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사진+미술)
교육기간 2018. 4. 28. ~ 2018. 11. 10.
교육장소 고은사진미술관 세미나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52번길 16)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단체명
(재)고은문화재단
문의처
051-746-0055
홈페이지
www.goenmuseum.kr
blog.naver.com/goenmuseum

현장스케치



사진 스토리 만들기

참여자 두 명이 팀을 이루어 사진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수업으로, 먼저 OHP 필름 위에 서로의 얼굴을 그리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6개의 스토리 란에 “친구”라는 단어를 넣어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촬영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높였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다.



현장학습(동백섬)

현장학습으로 해운대 동백섬과 주변을 필름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했다. 자유 촬영 및 선생님이 준비한 미션지에 따라 촬영하면서 바다와 하늘 등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스케치

우리들의 사진을 감상해요!

1, 2기 참여자들의 가족을 초대하여 열리는 최종발표회로 1부는 활동영상 감상 및 참여자 소감문 발표, 2부는 야외 테라스에 설치된 전시를 관람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참석한 가족들의 사진을 촬영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담당자 후기

사진의 의미가 시대가 변할수록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가 될 때까지의 설렘, 앨범에 사진을 들춰보며 떠올리던 추억들이 이제는 디지털화되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디지털카메라를 이해시키고 필름카메라의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 그 속에 나와 너, 우리의 추억들이 함께 있길 바랐는데 잘 진행되었던 것 같다.

곽동경 기획자

아이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길 바랐다. 카메라의 원리,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메라를 어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길 바랐는데 차시가 진행될수록 나아졌던 것 같다. 또한 수업 시간마다 서로의 사진을 함께 감상하며 나와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노하나 주강사

일반형 48

정미숙무용단

우리의 전통춤을 보존전승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을 (공연, 연구활동)통해서 무용 발전에 이바지 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민이나 소외계층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향유권을 제공 하는데 기여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하는데 노력하여 지역의 역량 있는 무용 교육자를 양성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향유자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몸으로 소통하는 세대공감

정미숙 무용단에서 진행하는 “몸으로 소통하는 세대 공감”은 다양한 신체표현 활동을 통하여 춤추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건강한 신체와 아름다운 감성을 만들어가는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무용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무용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2. 12.
교육장소 화명동종합사회복지관
교육대상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가족

단체명 정미숙무용단
문의처 051-628-2897
홈페이지 black612000@hanmail.net

현장스케치

라포 형성하기 3space 탐색 어디에 있을 까요 내 친구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내 몸은 볼링공이 되기도 하고 내 몸은 볼링핀이 되기도 해요. 빠르게, 느리게 움직이고 구르기도 하고 달리기도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며 춤을 추고 있어요.



우리함께 춤길을 걸어요

실내공간에서 벗어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 하며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숲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숲속 친구들을 만나요. 숲에서 재미있는 놀이 찾아요.



현장스케치

몸짓 소리짓

그 동안 수업한 과정 발표하는 자리로 지역 주민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이루어졌다. 기능적으로 우수하지는 못하지만 열정과 즐기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관객들로부터 여러번 박수를 받았다.



담당자 후기

매년 뒤 돌아보면 아쉽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 좀 더 재미있게 즐기게 할 걸 너무 계획과 성과에 연연 하지 말고 뛰어나가 아이들과 놀아 줄 걸 하는 생각...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나 역시 부모님들처럼 내려놓지 못함에 재촉하고 더 기다려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함도 있다.

그럼에도 해맑게 토요일 꿈다락을 기다리고 언제 또 하나 물어오는 이이들을 보며 책임감도 느낀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가는 친구들을 보며 위안을 가지기도한다.

정미숙 기획사

처음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장애우 들의 어려움 특히 그들을 케어 하는 부모님 선생님들의 대단함에 존경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 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큰 공부였었다.

함께 살아가야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로를 알고 이해해가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기획자인데 서류작업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힘들었다. 이일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서류처리가 더 많아 조금 간소화해야 할 것 같다.

이하늘 주강사

일반형 49 드림 꿈 센터

드림 꿈 센터는 함께 꿈을 상상하고, 꿈을 그리고, 꿈을 만들고, 꿈을 나누고자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미술을 매개로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와 융합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세상 꿈을 그리다

장애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의(미술, 놀이, 심리, 음악) 활동을 통해 개인 능력에 대한 제한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가족의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게 한다. 단순한 미술 체험식 수업이 아닌 이론, 감상, 체험, 표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모듈 수업방식을 통해 소통, 공감, 참여, 협력, 배려를 배우면서 가족 간, 또래 간 문화공동체를 만든다.

장 르 미술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1. 17.
교육장소 사) 부산장애인부모회
교육대상 장애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단체명
드림 꿈 센터
문의처
ttoto14@hanmail.net
홈페이지
cafe.daun.net/DrimDream

현장스케치

딱딱 구슬치기

박스 안에 화지를 깔고 물감 묻힌 구슬을 굴린다.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연상되는 것을 표현해 본다. 그 다음 에코가방 위에 똑같이 구슬을 굴린다. 구슬이 굴러다니면서 의도 하지 않은 색의 변화를 경험한다. 우연히 만들어낸 구슬들의 흔적은 작품이 되고 작품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안녕~ 젼탱글

낙서는 복잡한 마음을 비우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표현방법이다. 낙서의 한 부분인 젼탱글의 패턴을 익힌 다음 구획을 지어 그 안에 익힌 패턴들을 채워 넣는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평온함으로 이어지고 채워진 탱글은 작품으로 승화되어 충분한 만족감으로 다가선다.



현장스케치

작품을 걸다

1기 10차시와 2기 15차시 작품을 모아 부산인권전시실에 전시한다. 가족과 지인, 향유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오프닝 커팅식을 갖는다. 수업대상자들은 도슨트가 되어 전시작품을 설명한다. 유종의 미를 거둬들면서 자축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담당자 후기

부산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이 벌써 4년째이다. 처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을 하면서 놀랐던 건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탓에 그들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 밖을 나오면 아이들에게 '이러면 안 돼, 하지마'를 입버릇처럼 하게 된다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과 아이들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신나게 놀았다. 1년차인 가족부터 4년차인 가족까지... 차시가 거듭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아이와 부모는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다, 또 아이는 아이끼리 친구가 되어가고 부모는 부모끼리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즐거운 소풍이자 행복한 놀이터가 되었다.

전용미 기획사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장애를 둔 부모에게 자주 듣는 말은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다 가는 게 꿈이고 소망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말은 평생 두고 보살펴야 하는 장애를 둔 부모의 힘겨운 시간을 그대로 반영된 말인 것 같다. 그 가족들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은 크나큰 활력소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꿈만 같았던 꿈도 생겼다. “안해, 싫어” 란 말만 내뱉던 서현이는 큰 소리로 구령을 불어 시작과 마지막 인사까지 하게 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언어로 표현이 어려운 언지는 1인 방송을 하게 되었고, 성재는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등의 그들만의 무지개 빛 꿈이 생겼다. 이렇게 그들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이 이어져 꿈만 꾸는 꿈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꿈이 되었으면 하는 강사의 꿈을 가져본다.

박영미 주강사

일반형 50
아지무스
오페라단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법인으로써 2002년에 창단되었으며 32명의 단원과 함께 15년 동안 34회의 오페라 정기공연과 300여회의 초청음악회와 콘서트를 진행하였으며, 문화관광부의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하이파이브, 토요가족합창단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가족합창, 악기연주, 야외체험, 공연현장체험활동,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 간의 협동심을 높인다.

장 르 음악
교육기간 2018. 4. 21. ~ 2018. 12. 24.
교육장소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교육대상 초등학생과 학부모

단체명 아지무스오페라단
문의처 051-631-4649
홈페이지 naver.cafe.agimus

현장스케치

수업장면

바람개비언덕, 당근송 등의 노래를 안무와 춤에 맞춰 함께불렀다.



현장학습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관람하였다.



결과발표회

가족별로 노래와 악기연주등의 발표회를 가졌다.



담당자 후기

토요일이 다가오면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진행할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설립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배우고 노래만 할수 없으니깐 새로움을 제공하고 간간히 게임을 통하여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더 많이 대화하고 어울리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해서, 어른들과 함께해서 좋았다는 소감을 들었습니다.

손옥 기획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꼈고 부모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적인 음악활동이나 수업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나누고 소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가정별 개인이 행복해야 단체와 사회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가족 레크레이션, 함께 다니기 등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영숙 주강사

인큐베이팅 51
피스 오브 클래식
(Piece of classic)

Piece of Classic은 piece of cake 라는 말처럼 클래식도 케익과 같이 쉽고 맛있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 및 교육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음악정거장

여행을 떠나듯이 다른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접해보고 놀이와 체험, 연주를 통해 여러 장르의 음악을 즐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음악)

교육기간 2018. 9. 29. ~ 2018. 12. 28.

교육장소 서동예술창작공간 2층 다목적실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149번길 8)

교육대상 초등학교 2학년 ~ 4학년

단체명
피스 오브 클래식

문의처
caedae@naver.com

현장스케치



공연 에티켓 배우기

백석 시인의 시가 원작인 <개구리네 한술밥> 뮤지컬을 관람하고 공연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놀이

보물찾기(악보 조각을 숨겨놓고 아이들이 찾아 조각을 완성하고 노래를 완벽히 부르는 팀이 승리하는 놀이/게임 조각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팀이 승리) 붐웨커 활동(붐웨커로 다양한 악기 만들기 퀴즈놀이/작은 별, 학교종, 젓가락 행진곡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결과물 전시 및 악기 체험활동

OX퀴즈(수업 전반에 관련하여 OX퀴즈), 음악 맞추기 퀴즈(수업에 관련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제목 맞추는 놀이), 수료증 시상 및 단체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담당자 후기

인큐베이팅 사업 덕분에 꿈다락 프로그램을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사업 신청하기 전 재단에서 진행했던 A.B.C. School에서 배웠던 것들을 접목시켜 수업을 진행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고 컨설팅을 통해 수업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교육과 컨설팅으로 줄일 수 있게 도와준 재단 덕분에 이 경험을 시작으로 우리단체는 앞으로 탄탄한 교육프로그램과 기획으로 부산문화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다영 기획자

산에서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단체로서 2018년도 부산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사업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업 공모에 앞서 열린 부산문화예술교육 인력연수(A.B.C. School)를 통해 구체화되지 않은 예술교육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보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편성된 10차시는 특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가장 적절한 교육 회차였습니다. 시작 전 그리고 사업 수행 중 수행된 진심어린 컨설팅은 프로그램 진행 중 막막뜨리는 여러 시행착오에서 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부산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연수과정과 사업, 워크숍 등을 통해 부산의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승 주강사

인큐베이팅 52
피움문화
예술교육연구소

피움은 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사회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더불어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함께 꿈꾸고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합니다. 공예전공자, 미디어전공자 및 역사교육전공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로 공예 문화예술교육사업에 10년 이상 진행해 온 전문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예술문화회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한 경험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관련 수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토토즐! 토요일, 흙으로 즐기는 문화예술

옛 선조들의 도자문화로 삶과 예술을 바라보고 사람-생활-도자기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아 다양한 체험과 창작활동의 도자기 제작 및 쓰임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의 정서적 성장과 관계 증진 및 더불어 삶의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장 르 미술
교육기간 2018. 10. 13. ~ 2018. 12. 15.
교육장소 부산도예교육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당사로3길 19)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가족

단체명 피움문화예술교육연구소
문의처 ufo0115@naver.com
홈페이지 꿈다락 토토즐 밴드
https://band.us/na2acy009z2q4h

현장스케치

도자기 제작과정 이해하기

만드는 활동 이후 초벌된 기물을 스스로 다듬고 다양한 색의 유약을 입혀보는 과정을 경험하고 가마에 직접 재입하는 색다른 체험활동을 통해 도자기 제작과정 이해하였다.



우리는 유물탐험대! 박물관이 궁금해요

박물관 프로그램의 체험활동을 하며 직접 고분을 뛰어다녀보고 전시실 유물을 살펴보고 퀴즈와 활동지를 통해 유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능력을 키우고 토기에 대해 선행 학습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박물관 도자기 이름의 비밀을 풀자

우리가족 도자기 찾기 후 이름 짓기를 통해 박물관 도자기 이름의 비밀을 풀고, 골든벨을 울려라 게임을 통해 그동안의 수업과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복습하고, 온가족 다과회 시간을 통해 직접 만든 도자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며 쓰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담당자 후기

결과 보다는 과정, 무엇을 어떻게 기획할까? 기능 중심의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난 창의-체험활동으로 우리문화의 이해와 쓰임의 향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아래 피움이 잘 해 볼 수 있는 흙으로 즐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어느 시설에서도 접하기 힘든 사유와 가마재입의 체험활동은 참여가족에게는 색다른 경험과 도자기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가족 도자기 이름 짓기를 통한 박물관 도자기 이름의 비밀 풀기는 낯설고 어려운 박물관관람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가교역할이 될 수 있었다. 컨설팅 후 피드백을 받은 부분은 쓰임의 주제적 측면에서 우리가족의 스토리 첨가와 단체의 밴드 및 블로그 활동이었다. 후반부 활동부분에 첨가한 우리가족을 담은 도마 만들기는 가족 간의 친밀감 형성을 향상 시켰고 밴드활동 후 참여자들의 관심은 지속적 수업참여로 이어졌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사업 운영은 모든 것이 처음인 기획자에게는 힘든 여정이였다. 허나 내성적인 우석이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매주 간식시간에 맞춰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던 규원의 '너무 열심히 해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와 마지막 주 선생님들과 사진을 찍으며 눈물 맺는 현지의 순수함 등은 운영에 있어 역량을 키우는 거름이 되었다. 10주 동안 빠지지 않고 함께 해 주신 부모님들과 아이들, 힘든 수업과정을 묵묵히 진행 해주신 세분의 강사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박은정 기획자

체험과정을 통해 도자예술과 그 역사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배우며 생활예술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만의 상상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창작자로서의 교감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흙이 불을 만나 도자기로 단단하고 멋지게 구워지듯 예술에 싹을 틔운 지금, 이 시간들이 좀 더 단단하며 개성 있고 창의적인 아이로 조금이나마 성장되었기를 그리고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표지현 주강사

인큐베이팅 53 예술터미널

단체명
예술터미널
문의처
silver1038@nate.com

예술터미널은 2012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예술터미널은 음악과 공연, 미술의 전문 주자들로 구성되어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예술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연주와 공연 등을 통해 사회 예술문화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원들 각자 대학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밴드 또는 개인적으로 연주활동 및 공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꿈을 안고 떠나는 타임머신여행

각자의 꿈의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극을 만들어 20년 후의 미래모습으로 극독하고 꿈에 관련된 노래와 안무도 배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 장 르 통합 (음악, 뮤지컬)
- 교육기간 2018. 9. 29. ~ 2018. 11. 25.
- 교육장소 부산남구노인복지관 (부산시 남구 못골로 97-10)
- 교육대상 초등학교 2학년 ~ 5학년

현장스케치

We go together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함께 끌어주고 격려하며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걸 수업을 통해 한 번 더 알게 된 시간.



결과발표회

그간 수업 때 배우고 익혔던 노래와 안무, 극, 타악 연주를 맘껏 뽐낼 수 있는 즐겁고 뿌듯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담당자 후기

이번에 꿈다락 수업 맡게 되면서, 어떤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할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호흡을 잘 맞추며 수업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 두려움과 기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별난 아이들도 없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 에너지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강사선생님들도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아이들과 놀아가며 다독여가며 수업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했구요. 수업 차시도 짧았고, 수업준비 기간도 짧아서 막상 수업이 끝나고 나니, 아쉬운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데, 다음 수업에는 준비를 더 잘해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도록 강사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이병주 기획자

10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생각 보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10주치의 작은 발표 공연은 강사와 아이들, 찾아오신 가족 분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여유를 남겼습니다.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목표하던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수가 많아 수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할 요소들도 많았지만 세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조율하며 원만한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혜경 주강사

인큐베이팅 54 부산공예문화 예술연구소

단체명
부산공예문화예술연구소
문의처
ryoya1@naver.com
홈페이지
한지로 그리는 감성 그림책
band.us/@busanartculture

공예와 인문학이 어우러져 가치를 더하고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단체입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만져보고, 마음껏 느껴보는 창의적인 공예활동과 생각의 장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꿈과 창의력을 끌어내는 디딤돌과 같은 단체입니다.



한지로 그리는 감성 그림책

나의 추억과 감성 그리고 주변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을 바탕으로 그림과 스토리를 창작하고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책의 스토리를 써보고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감성과 정서를 교감할 수 있습니다. 한지의 질감을 느껴보고 탐색하여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림책에 담겨진 사물과 인물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한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장 르 통합 (미술(공예)+인문학)
교육기간 2018. 10. 13. ~ 2018. 12. 15.
교육장소 작은글마루도서관 (부산광역시 중구 동영로 87-1, 영주동)
교육대상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현장스케치



몸과 마음 열기

수업의 세부내용을 알려주고 자기소개 게임을 통해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나를 표현하는 아바타 가면을 만들었어요. 자기소개 게임은 나를 소개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나의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하는 순서에서 '집'을 가장 많이 적고 발표했답니다. 아바타 가면을 만들면서 처음 만나는 한지! 한지의 섬세한 특징에 매료되는 시간입니다.



사물의 탐색 및 표현 1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수업날입니다. 야외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가을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나뭇가지와 솔방울 낙엽, 단풍잎 등을 가져와 탐색하고 액자에 내가 느끼는 가을을 한지로 표현하여 담아냅니다.



현장스케치

결과발표회

꼬마 작가들의 작품전시회 날입니다. 인쇄되어 출간되는 그림책과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우리 꼬마 작가들의 소중한 기억, 생각, 상상, 애정이 들어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한지를 손으로 찢어 사과, 고양이, 강아지, 여행의 기억, 상상의 이야기를 표현했어요.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수료증 전달과 아이들 작품전시, 다과 및 체험거리를 준비하여 우리만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담당자 후기

글마루작은도서관 이라는 작지만 정겹고 따듯한 공간에서 책과 공예를 접목한 수업이 없을까 생각하다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0차시 수업으로 글감과 그림을 넣고 표지까지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수업일까 고민이었지만 수업이 시작된 후 고사리같은 작은 손으로 한자한자 글을 적고 한지를 뜯어 그림을 완성해가는 아이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내가 너무 아이들을 과소평가하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책을 더 만들어보고 싶다는 아이들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심아영 기획자

인문학과 한지공예가 만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한지로 만든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지를 구겨보기도 하고 뜯어보기도 하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음에도 쉬지 않고 그림책 속 스토리와 그림을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가며 완성도를 높이는 주도적 학습을 하는 모습이 아이들의 집중력이라 대단하구나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끼던 아이들은 한지 다루는 기법을 수업을 통해 익히고 난 뒤부터는 자유자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업에 부딪함과 동시에 수업이 끝나감에 있어 아쉬워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지금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면 되지”하고 약속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이정숙 주강사

인큐베이팅 55
세상을 바꾸는
도자공예
협동조합

2017년 <부산에서 청년도예가로 살아남기> 프로젝트에서 만난 인연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청년도예가들이 모여 이 시대에 필요한 도자공예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도자공예를 지향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예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기나라, 우리나라

한국은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라 '다문화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나라 우리나라'는 도자공예의 연리문 기법과 연극놀이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장 르 통합 (공예+연극)
교육기간 2018. 9. 29. ~ 2018. 12. 15.
교육장소 부산진구 여성가족문화센터 (부산시 진구 백양대로 160, 5층)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을 둔 다문화가족, 한국가족

단체명 세상을 바꾸는 도자공예 협동조합
문의처 051)754-7304
usefulworklab@naver.com
홈페이지 usefulworklab.creatorlink.net
chaeumceramic.modoo.at

현장스케치

편견깨기 및 관계형성

흙으로 만드는 그림 퀴즈를 통해 가족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다양성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색의 흙을 반죽해보는 작업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전통문화의 중요성 및 다양성의 이해도 향상

자신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보았다. 다양하고 개성있는 그릇 모양과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 나와 가족들 모두가 신기해했다.



현장스케치

다문화세미페스티벌

다문화세미페스티벌을 개최 해 9차시 동안 만든 작품들을 전시했다. 각 국의 전통차, 전통음식 등을 가져와 작품에 담아 전시를 했고, 기차놀이 형식을 차용한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설명 및 수업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담당자 후기

새로운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이 만나 무언가를 함께 10주 동안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문화예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놀이와 공예를 통해 모두가 함께 움직여보고 만들어보며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회차가 다가왔을 때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을 모두가 터득한 것 같아 기획자로서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다. 이번 인큐베이팅을 통해 아쉬운 점도 정말 많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상 만들기."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여,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상 만들기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지안 기획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껏 내가 해왔던 도예수업은 문화예술 교육과는 달랐다. 기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의 도자공예 수업은 학교 수업 이상의 것이 되기에 힘들다는 것을 이번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깨달았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도자공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김지성 주강사

04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모임 지원

- 1) 사업목적
다장르의 예술강사 및 기획자들이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인력 연수' BASIC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시 활용하고자 함
- 2) 사업기간 : 2018. 10. ~ 12.
- 3) 사업내용 : 학교(교과)연계, 지역문화공간 연계, 장르 간 융합 등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4) 사업예산 : 15,000 천원 (5개 팀, 각 팀별 3,000천원)
- 5) 사업대상 :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인력 연수 A.B.C SCHOOL> BASIC 과정 수료자로 구성된 5개 팀



애니 무용 통합 자율 연구개발 팀 | 장수광 김은정, 최윤정

- 연구주제 | 자유학기제 적용을 통합(시각-무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문화예술교육계에 주목받는 '과학'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 과학의 예술화에 기여한 네온아트를 활용한 장르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문화 및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 필요함
 - 자유학기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확대되는 정책적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술분야 자유학년제에 활용하고자 함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네온 빛으로 표현하는 일상 속 다양한 메시지
 - 프로그램 목표 : 네온아트의 일상생활 속 디자인적 표현방식과 추상표현의 예술화하고, 선과 면, 빛과 전류, 관계와 흐름, 멈춤과 움직임 등 예술적으로 표현함
 - 프로그램 내용 : 네온아트를 활용하여 학습지의 추상적 표현사고를 캐릭터화 하고(만화애니메이션), 스토리를 구성하여 움직임(무용)으로 표현하고자 함
 - 프로그램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 프로그램 커리큘럼

차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1	LED네온 1단계를 활용한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리터러시란? •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 및 캐릭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애니메이션의 특징 알기
2	나만의 특별한 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면의 의미알기 • 가오나시 캐릭터 디자인 및 가면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릭터 <가오나시> 분석
3	나만의 캐릭터 몸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캐릭터 이름과 몸 형태 그에 따른 움직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캐릭터 몸 형태 제작 • 네온아트의 활용과 적용방법 • 빛 포퍼먼스에 대하여 알기
4	나의 빛 움직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핑거라이트로 표현하는 빛 놀이 • LED네온 디자인 및 제작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네온의 활동과 적용방법
5	나의 빛 움직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광막대로 표현하는 빛 놀이 • LED네온 디자인 및 제작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네온 1단계를 활용한 움직임
6	나의 캐릭터로 표현하는 빛 움직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캐릭터에 맞는 움직임, 속도 대형 분석 • LED네온 디자인 및 제작 1, 2단계 응용제작
7	나의 캐릭터로 표현하는 빛 움직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캐릭터 움직임 속도 대형 음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동작 작품 제작
8	발표 및 영상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네온으로 표현하는 나의 캐릭터 이야기 및 나눔

예술답상 | 모상미, 정미숙, 이유림

- 연구주제 | 지역 문화공간(부산생활문화센터) 활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부산 최초의 은행인 옛 한성은행 부산지점 건물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됨에 따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의 특수성(장소성·지역성·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중구는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광통시장 등 규모가 큰 시장이 밀집 해 있으며 남포동, 근대역사문화재 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상권, 선박 및 은행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장인 대상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수다로 푸는 예술 놀이터 '몸, 소리, 공작, 수다방'
 - 프로그램 목표 : 연극, 무용, 공예를 소통의 매개로 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을 통해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예술을 통한 직장인 여가문화 조성하고자 함
 - 프로그램 내용 : 움직임을 통해 내면의 '나 자신'을 찾고, 일상의 스토리가 다양한 디자인 소품을 제작하고, 수다를 통해 일상의 문화가 되는 '소확행'을 실현하는 통합(연극, 무용, 공예) 프로그램
 - 프로그램 커리큘럼

차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1	예술로 마주하는 나	•몸풀기 게임 : '몸으로 말해요' •〈마인드맵〉 활동 •상대방의 등에 붙여져 있는 제시어를 돌아다니며 몸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등에 어떤 제시어가 붙여져 있는지 맞춤
2	하루를 담아내는 사물	•일상에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수다로 표현 •주제탐색을 통해 나온 사물에 대한 도안을 스케치하여 스트링아트 디자인 도안 작업 및 제작
3	내 몸의 춤, 내 마음의 춤	•몸 소리 찾기-몸에서 소리가 날 때의 움직임 만들고 기억하기 •육성으로 소리 만들기-소리가 날 때의 움직임 확대하기 •움직임 플레이즈 만들기 •소리와 함께 만들었던 움직임에 리듬과 함께 구성
4	일상을 예술로 담다	•교실 속 물건으로 소리를 찾은 후 듣고 상황으로 연상하기 •소리를 몸으로 표현하고 동작을 연결하여 즉흥적으로 표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구성

꿈지“樂” | 이승호, 정보은, 이세훈, 유현숙

- 연구주제 | 교과연계(국어)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교육부는 2017년 9월 12일에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계획" 시간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형태로 확대 운영중에 있음
 - 그러나 아직 정책 도입 초기 단계로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며, 여러가지 활동분야 중 특히 예술·체육 활동분야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등 학생들의 수요에 대해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명 : 나의 꿈을 찾아서(가제)
 - 프로그램 목표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 목표 및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내용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체험하는 진로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대상 : 중학교 1학년
 - 프로그램 커리큘럼

차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1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견 나눔	•자신의 진로, 꿈에 대한 의견 교환 •구체적 사례 소개, 동기 유발, 미술 재료를 활용한 인물 표현 준비,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 및 통합적인 표현을 위한 구상
2	표현 및 제작(1)	•자신의 진로, 꿈, 존경하는 인물 표현 •다양한 미술재료를 이용한 존경하는 인물 만들기(가면, 찰흙 등)
3	표현 및 제작(2) 나눔	•제작된 인물에 대한 개별 설명 •꿈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나눔
4	꿈에 대한 표현(1)	•무용에 대해 이해, 몸 풀기, 팀 나누기 •자신의 꿈 및 진로를 몸으로 표현 •가장 특징적인 몸짓 표현하기
5	꿈에 대한 표현(2)	•놀이를 통한 표현 익히기 등 •모듬별 표현 놀이 등
6	통합적 예술표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 선정
7	꿈에 대한 역할극	•자신의 장단점 토의하기 •자신의 꿈을 표현하기 위한 역할 선정
8	대본 및 장면 만들기	•자신의 역할에 맞는 대본 만들기 (몸짓에 따른 표현, 작품과의 관계에 따른 문장 만들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장면 만들기
9	최종 연습	•자신의 꿈에 대해 미술, 무용, 연극적인 기법을 통해 표현
10	발표회	•발표회 개최(+상장 혹은 수료증 만들기, 의견교환)

소설과 뮤지컬의 만남 | 손 욱, 조강미, 김 진, 임지연

- 연구주제 | 교과연계(국어) 뮤지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초, 중등 교과과정에 나오는 소설이나 역사를 통합예술교육 과정을 통하여 뮤지컬로 재생시킴으로써 학령기 청소년들의 감성을 개발하고 예술인문학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명 : 소설과 뮤지컬의 만남
 - 프로그램 목표 : 문학작품을 뮤지컬로 재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내용 : 교과과정의 주요 문학작품을 뮤지컬 대본으로 작성해보고 가사와 음악 및 무대 의상, 무대 미술 등 뮤지컬의 주요요소 전반을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대상 : 중학생 1~3학년 15명 내외
 - 프로그램 커리큘럼

차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1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킹 : 몽타주활동(게임) •뮤지컬 맛보기 (영상 감상) •우리가 만드는 뮤지컬 토론
2	뮤지컬 기획하기(1)	•소설과 뮤지컬의 차이 알아보기 •황순원 작 <소나기> 내용 탐색 •내 마음을 두드리는 부분 찾기 •내 마음의 수채와 그리기
3	뮤지컬 기획하기(2)	•시각화(visualizing)에 대해 알아보기 •소설에서 인상적인 부분 찾기 •소설을 뮤지컬 대본으로 써보기
4	뮤지컬 기획하기(3)	•뮤지컬 대본 완성하기
5	뮤지컬 시나리오에 맞는 선율 만들기	•음악을 들은 후 대본에 어울리는 선율 만들기 •조별로 장면과 대사에 어울리는 선율 만들기
6	가사 작성 및 가창 연습하기	•주인공의 성격과 극의 흐름에 어울리는 가사 만들기 •박자, 리듬, 약상을 생각하며 노래 연습하기
7	배경음악과 효과음 선정하기	•배경에 어울리는 효과음 찾아보기 •주인공의 성격에 어울리는 효과음 만들어 보기
8	무대 동작 연습(1)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움직임 만들어 보기
9	안무와 대사 동작 연습(2)	•대사와 안무 외우기 •대사와 안무에 어울리는 무대 동작 만들기
10	무대 장치 만들기	•배경 장면 정리하기 •무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배경 표현하기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대 표현하기
11	의상 만들기 무대 꾸미기	•등장인물의 성격과 배경 알아보기 •시대적 배경 알아 보기 •어울리는 무대 의상 만들기
12	결과 발표회(공연)	•무대 공연하기

플레이무브먼트 | 문나옥, 이정임, 이수현, 심희수

- 연구주제 | 교과연계(국어)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교과과정에 대한 동기 유발과 흥미 증대 / 예술을 이용 학생에게 학습의 다양성 제시
 - 예술교육의 활용방안을 탐구하여 예술교육의 저변확대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움직이는 국어교실
 - 프로그램 목표 : 예술적 활동을 통한 '실감나게 띄어 읽기' 를 통해 문장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프로그램 내용 : 초등학교 1학년 15명 내외
 - 프로그램 커리큘럼

차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1	글과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기	•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 알맞게 띄어 읽기
2	나만의 특별한 캐릭터	• 알맞게 다양한 문장들을 연결하여 띄어 읽기 • 주요 내용 확인하기
3	발표 및 영상촬영	• 인물의 처지와 마음 짐작하기 • 읽기에 흥미 갖기



01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꿈다락'

시골벽적 예술놀이터

1) 사업목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성과 공유 및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의 장 마련
- 문화예술교육단체 간 프로그램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도모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브랜드 이미지 구축

2) 사업내용 : 문화예술 전시, 공연 및 체험 부스 운영

3) 사업기간 : 2018. 11. 3. (토) 10:00 ~ 17:00

4) 장 소 : 부산 KNN센텀광장, 부산시청차미디아센터

5) 참여인원 : 3,000명

6) 소요예산 : 170,000천원

IV 자체 기획사업



축제 포스터



축제 구성도

세부프로그램

구분	참여단체 및 주요내용	장소
예술놀이터	- 꿈다락 짝GO 기자단 운영 - 버블리스트 류팡, 초록마술사의 상상세계 - 팡팡 행운을 잡아라! (쏟아지는 선물 이벤트) - 예술놀이터에서 만난 꿈다락 (쉽터 및 조형물 설치) - 신나게 놀아볼까? (대통령뉘시!, 희망을 담다 : 소원메모)	KNN광장 (부스 및 야외무대)
전시	- 오픈스페이스 바 외 3개 단체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결과물 전시	
체험	- 문화콘텐츠교육연구소 큐브 외 23개 단체 - 공예, 놀이, 엽서, 예코백, 북아트 등 체험활동	
공연 I.	- 부산예술단 외 13개 단체 - 대취타, 연극, 스트리트댄스, 창극, 밴드공연 등	
아카이빙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영상 및 사진 전시	
기획	- 조선통신사 (정사)의상 및 가마체험 - 잠자고 있는 악기에게 새주인을 찾아주세요! (악기부캠페인/문화공유팀)	
공연 II.	- 이야기와 함께하는 공연 (더발레프로젝트)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
문화로 36.5°C	- 재단 홍보 부스 운영 및 기부캠페인 추진	홍보부스
푸드zone	- 맛있는 시간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 5개 업체 참여)	푸드zone
전체이벤트	- zone별 2개 이상 (총 5개) - 전시관 및 체험 후 스텝 받고 선물 수령	운영부스

행사 리플렛



축제 사진



축제 사진



축제 사진



축제기획위원회

축제 기획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위원 구성 : 기획형 수행단체 기획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8명으로 구성
- 축제 기획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4회 회의 진행(5, 6, 8, 10월)
- 행사 총 기획자 및 축제 소주제별 행사장(전시, 체험, 공연)마다 각 1명씩 실행위원으로 선정



02

부산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1) 사업목적
 - 지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비전 실현
- 2) 사업내용 : 2018. 1.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2018~2022 문화예술교육 중합계획」에 따라 비전 및 전략, 과제를 반영한 부산 문화예술교육 중합계획 수립
- 3) 사업기간 : 2018. 4. ~ 12.
- 4) 소요예산 : 30,000천원

2018-2022 문화예술교육중합계획 비전과 전략		부산 문화예술교육 비전과 목표(안)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비전	함께 누리며 성장하는 행복한 부산문화예술교육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목표	부산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구축	문화예술교육 질적 기반 고도화
추진 전략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추진 전략	• 기반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	• 생활권 연계 문화 예술교육 기반 확대	•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집중성 강화	•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과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영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연계성 강화	• 국내외 통합 및 지역 실태 연구·조사

5) 연구위원

이름	소속	비고
이순옥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조영미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남영희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공동연구원
정민경	부산 청년문화 네트워크 감사	
최혜선	부산대학교 예술학 석사 수료	보조연구원
서희정	동의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이육상	오픈스페이스 배 교육팀장, 화명고등학교 교사	검토위원
류기정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부산 예술강사센터장	
권영숙	부산시교육청 유치등교육과 장학관	당연위원
명지정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복지팀장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03

부산 문화예술교육 인력연수 『A.B.C SCHOOL』

- 1) 사업목적
 - 부산다운 문화예술교육인력을 양성하고 예술 강사, 기획자, 개인, 예술단체의 효과적인 연수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산지역 문화예술 역량강화 도모
- 2)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예술인력 및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수행단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3) 사업기간 : 2018. 7. ~ 8.
- 4) 소요예산 : 50,000천원
- 5) 사업대상
 - ① 문화예술교육 예비인력 (PRE)
 -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졸업예정), 대학원생 및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생, 문화예술교육 경력 3년 미만의 지역 예술가, 문화기획자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2018년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미선정단체 등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지원 대상 / 선정 후 지원
 - ② 2018년도 부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수행단체(BASIC)
 - 수행단체 소속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 자율연구개발 지원 (5개 모임 지원)



세부교육내용

단 계	차시	일 시	교육내용	강 사		
P R E	예비인력 아카데미	1	7. 6.(금) 14:00~17:00 (3h)	- 오리엔테이션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	이육상 (오픈스페이스 배 교육팀장)	
		2	7. 10. (화)	14:00~17:00 (3h)	[사례발표] 문화예술교육단체 운영의 실제	문지영 (오픈스페이스 배)
				17:30~19:00	석식 및 이동	이호숙 (문화콘텐츠교육연구소 큐브)
				19:30~20:30 (1h)	[예술공연관람] 숲 속의 열린 음악회: 악기, 그림을 노래하다	서동건 (스트릿 무브먼트)
	3	7. 14(토) 14:00~17:00 (3h)	[현장체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체험	진행 : 담당자		
4	7. 18(수) 14:00~17:00 (3h)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기초	이육상, 문지영 (오픈스페이스 배)			
B A S I C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기본소 양교육 (기초공통)	1	7. 5.(목) 14:00~17:00 (3h)	- 오리엔테이션 -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이미연 (연극놀이연구소 As If 소장)	
		2	7. 12.(목) 14:00~17:00 (3h)	부산의 이해 : 지역문화예술의 접근법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장)	
		3	7. 19. (목)	14:00~17:00 (3h)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이해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 본부 부연구위원)
	17:00~19:00			석식 및 이동	진행 : 담당자	
		19:00~21:00(2h)	[예술공연관람] 천생연분: 한규확산을 위한 국악공연			
	강사-기획자 역량강화 교육 (분반 운영)	4	7. 26.(목) 14:00~17:00 (3h)	[예술강사]	교육대상(학습자)의 이해	서희정 (동의대학교 평생교육·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기획자]				기획자로서 전문적 글쓰기 방법	조은아 (문화공 대표)	
5		8. 2.(목) 14:00~17:00 (3h)	[예술강사]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수업지도안 작성법	이승민 (범일초등학교 교사)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빙	장현정 (호밀밭 출판사 대표)	
6		8. 6.(월) 14:00~17:00 (3h)	[예술강사]	통합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유정민, 이은미, 최아영 (서울문화재단 TA그룹)	
			[기획자]	국고보조사업의 행정 운영과 관리	배일성 (공인회계사사무소 대표)	
수료식		8. 10.(금) 15:00~18:00 (3h)	연계사업 설명회 및 수료식	진행 : 담당자		

04
놀이마루 연계
기획사업

- 1) 사업목적 :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연계한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경험과 창의적 활동지원
- 2) 사업내용 : 예술가의 창작 작업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소년 문화 예술진로 융합 프로그램 운영
- 3) 사업기간 : 2018. 10. ~ 12.
- 4) 소요예산 : 30,000천원
- 5) 대상 및 장소 : 중·고등학생 / 놀이마루 내 프로그램실 (무용실, 의상실, 전시실)
- 6) 주요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강 사
공연예술	스트릿댄스	대중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스트릿댄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퍼포먼스 활동	허미영
창의융합	패션디자인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고 의상 디자인에서 부터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통하여 패션디자인을 재해석	김윤정 김도희
시각예술	건축디자인	설치미술을 통한 감각 디자인과 건축의 콜라보레이션	유현미 최진숙



05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

- 1) 사업목적 : 상호 결과공유 및 자유토론을 통한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유관기관, 예비인력간 네트워크 형성
- 2) 사업내용 : 2018년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추진결과 공유, 2019년도 사업 추진 방향 및 신규사업 안내, 특별강연, 자유토론, 경주시 문화공간 견학 및 예술공연 관람
- 3) 사업기간 : 2018. 12. 17. ~ 12. 18.
- 4) 소요예산 : 30,000천원
- 5) 참여대상 : 2018년도 부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수행단체 소속인력 ABC SCHOOL 예비인력과정 참가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예술강사 등



세부내용

일자	내용	진행
12. 17. (월)	• 2018년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추진 결과 공유	하경희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결과 공유 [자율연구개발팀] ① 애니무용통합자유통합팀 ② 플레이무브먼트 ③ 예술밥상 ④ 소설과 뮤지컬의 만남 ⑤ 꿈지樂 [연구개발용역팀] - 아트프로젝트 팀 팬시	담당자
	• 특별강연: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추진방향 및 지향가치	고영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
	• 2019~2022 부산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 2019년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안내	이민경 (부산문화재단문화교육팀 CM)
12. 18. (화)	• 주제 발제 및 패널 토의 [토론자] - 유현미 (커뮤니티아트센터 라온 대표) (발제1) 주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향후 추진방향 및 지향가치 -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발제자2) (발제2) 주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향후 추진방향 및 지향가치 - 옥순주 (함께사는문화마을공동체 대표) •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자유토의	진행 : 조영미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대표)
	• 지역 문화시설 견학 (국립경주박물관) • 지역 문화예술공연 관람 '에밀레' (경주정동극장)	담당자 담당자



01 상반기 사업결과 공유 및 정산교육

- 1) 행사명 : 2018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역량강화 및 정산교육
- 2) 일시 : 2018. 8. 21.
- 3) 장소 :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 4) 참석인원 : 부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소속 인력 85명 참석
- 5) 내용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상반기 운영보고 및 하반기 사업운영 보안을 위한 그룹별 네트워킹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관련 정산교육
 - 회계세법 및 문화예술교육 정산사례 강의
 - 문화예술교육 단체 네트워킹

V 역량강화 워크숍



02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대상 폭력예방교육

- 1) 행사명 :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폭력예방 교육
- 2) 일시 : 2018. 10. 5. (금)
- 3)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6F)
- 4) 참석인원 : 부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소속 인력 94명 참석
- 5) 내용
 - 폭력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개념이해 및 사례를 통한 상황대처 및 예방법
 -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성차별의 영향 및 다양한 폭력의 연관성 이해
- 5) 교육강사 : 곽진주 (한국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협회 공동대표)



03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워크숍

- 1) 행사명 :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 2) 일시 : 2018. 10. 11. ~ 10. 12.
- 3) 장소 : 서울특별시 일원 (양천구, 성북구, 성동구)
- 4) 참석인원 : 33명
- 5) 내용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우수사례 강의, 서울지역 내 문화공간 탐방,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등

일자	내용	진행	장소
12. 17.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사업소개 및 공간탐방 • TA그룹 예술강사 사례 공유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강득주 매니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연계 사업사례 강의 • 지역탐방 : 모기동(목2동) 마을소풍 	플러스마이너스1°C (김지영 대표)	플러스마이너스1°C (서울 양천구 용왕정길 30)
12. 1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개 및 공간탐방 (30분) • 치유예술 프로그램 체험 (100분) - 연극 / 사진 프로그램 (분반 운영) 	서울예술치유허브(이유나 매니저)	서울예술치유허브 (서울 성북구 회기로3길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투어 : 새활용 탐방 (30분) • 새활용 교육프로그램 체험 (90분) - 폐가죽 활용 에코백 만들기 	서울새활용플라자 (서호정) 오운유 (OWN U)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19)

V. 역량강화워크숍



VI 사업관리
방안

01

전문가위원 자문회의

1) 목 적 :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2) 추진일정 : 2018. 4. 4. ~ 12.

3) 자문위원

구 분	소 속	성 명
1	맨발동무도서관장	김부련
2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김원명
3	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장	박민희
4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서희정
5	지식·문화콘텐츠연구소 리먼 대표	성현무
6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이기호
7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이순옥
8	부산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	이영미
9	부흥고등학교 교감	조윤오

4) 회의결과

① 상반기 전문가위원 자문회의

• 회의안건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행단체 컨설팅 계획 논의 : (공모유형별) 계획 시기, 방법 등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행단체 모니터링 계획 논의

• 회의 내용

- 수행단체 컨설팅은 프로그램 시작 전 반드시 1회는 실시되어야 함.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낮아지고, 수정·보완이 어려움. 일정이 긴박하므로 그룹별, 개별로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작년에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포함 최대 5번 넘게 방문한 단체도 있었음. 단체의 긴장감과 피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방문 횟수를 줄이고, 전문가 모니터링은 현장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거나 하반기에 재단 담당자의 수시모니터링만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함

• 회의안건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행단체 컨설팅 계획 논의 : (공모유형별) 계획 시기, 방법 등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행단체 모니터링 계획 논의

• 회의 내용

- 수행단체 컨설팅은 프로그램 시작 전 반드시 1회는 실시되어야 함.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낮아지고, 수정·보완이 어려움. 일정이 긴박하므로 그룹별, 개별로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작년에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포함 최대 5번 넘게 방문한 단체도 있었음. 단체의 긴장감과 피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방문 횟수를 줄이고, 전문가 모니터링은 현장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거나 하반기에 재단 담당자의 수시모니터링만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함
- 컨설팅 위원-수행단체 매칭 시 위원별 전문분야 및 수행단체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컨설팅 횟수를 줄이는 대신,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컨설팅을 위하여 다른 전문분야의 컨설팅위원이 함께 수행단체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공모유형별로 선정기준이 상이했기에 컨설팅 지원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야 함. 2그룹과 기획형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단체가 많으므로 일대일 매칭으로 심도 있게 관리하고, 1그룹은 방향 설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기에 넓은 관점에서의 기초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함.
- 폭넓은 컨설팅 및 자문을 위해 각 예술분야 및 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위원 추가 위촉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② 하반기 전문가위원 자문회의

• 회의안건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성과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행단체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 2019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추진방향 논의

• 회의 내용

컨설팅 및 모니터링

-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수행단체 별 공통적 지표항목 + 주제별 특수지표 항목을 나누어 방향을 설계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향상에 도모해야 함.
- 컨설팅의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 자체 평가를 도입하여하여 수행단체에서도 스스로 프로그램을 진단하여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
- 현재 컨설팅, 모니터링이 향후 사업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차년부터는 수행단체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견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함.

차년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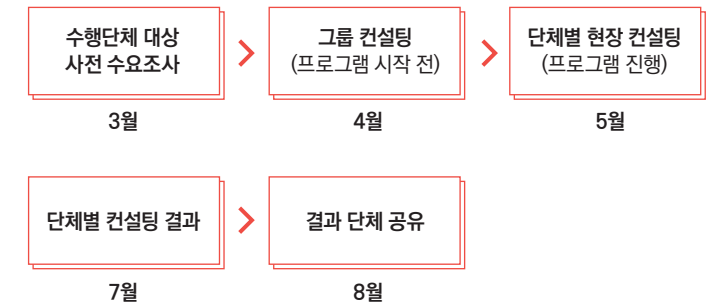
- 예산변화에 따라 지원금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수행단체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공간형', '콘텐츠형', '지역형' 등 지원창구의 오픈 설계가 필요함.
- 지원 사업 시 수행단체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학교·사회문화에 술교육 차별성과 분별성을 키워주는 계기를 마련해야함.



02 전문가위원 그룹 및 현장 컨설팅

- 목적 : 문화예술 향유의 대중화와 주말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 지원사업의 일환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안정화 도모

- 1) 운영기간 : 2018. 4. ~ 9.
- 2) 운영대상 :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수행단체
- 3) 운영내용 : 전문가의 사전면담 및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단체별 맞춤 컨설팅 지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시기 : 사업 최종 선정 후, 4월~6월 사이 단체별 프로그램 운영 중에 그룹, 현장 컨설팅 실시

- 내용 : 전문가의 사전면담 및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단체별 맞춤 컨설팅 지원

• 유형

① 전문가 그룹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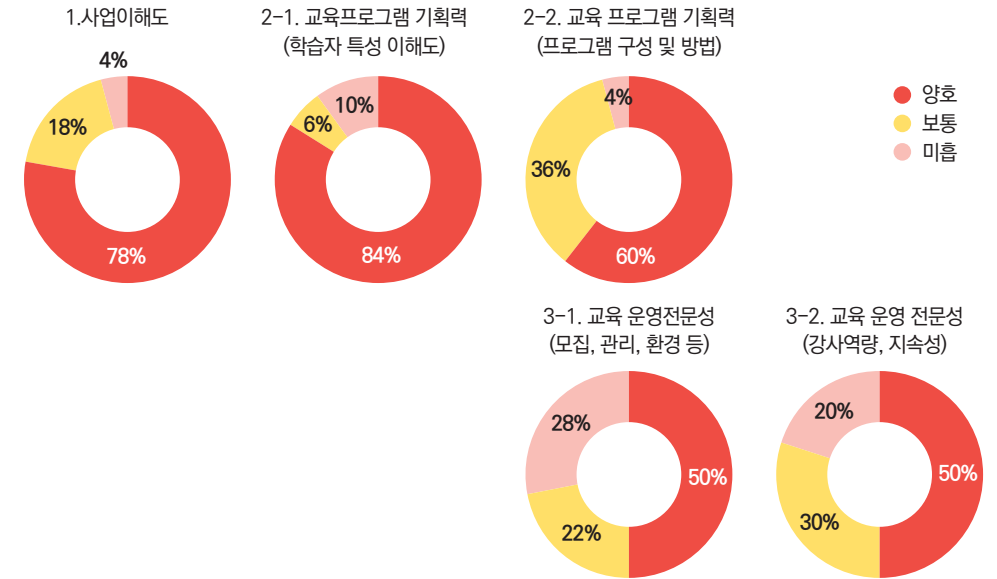
- 수행단체 장르 및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룹 구성하여 각 분야 전문가를 컨설팅 위원으로 매칭한 후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 재검토 중심으로 진행.
- 단체 간 토론 및 단체별 서류 컨설팅
- 그룹 컨설팅 불참 단체는 현장 컨설팅 2회 또는 개별 컨설팅 1회 추가 진행

② 현장 컨설팅 지원

- 그룹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단체 교육현장 방문.
- 기획형 수행단체 : 컨설팅 위원 2명이 함께 방문 하여 현장 컨설팅 진행



• 결과



4) 컨설팅위원

소속	이름	분야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김원명	공연예술
지식·문화콘텐츠연구소 리멘 대표	성현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이기호	
연극놀이연구소 As If 소장	이미연	시각예술
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장	박민희	
부산 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	이영미	문학
맨발동무도서관 관장	김부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이순옥	아동·청소년 교육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교수	서희정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조윤오	특수교육
부흥고등학교 교감	백호정	
부산시교육청 유초등 장학사	유광숙	
메디칼 아동 청소년발달센터 원장		

03

수행단체 현장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운영 방법 : 담당자 수시 모니터링 진행
- 대상 : 모든 수행단체 (56개 단체)
 - 기간 : 5. 27. ~ 12. 12.
 - 방법 : 교육장소 직접 방문하여 단체별 각 1회 실시, 점검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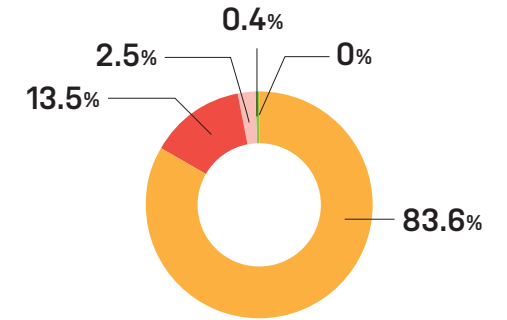
구분	문제점 및 필요 개선사항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강사 변경 또는 강사의 부재 • 교육시간에 맞춰 도착을 하거나 지각 등으로 수업시간에 영향 • 기획자, 주강사 및 보조강사의 역할 명확 불분명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출석부 구비 및 관리 다소 미흡 • 출석을 저조에 대한 방안 필요 • 안전 문제(공간, 교구 등)에 대한 집중적 관심 필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너 및 현수막 미부착 • 결과발표회 등 사업성과에만 치중 • 잦은 교육일시, 장소, 수업 차시 내용 변경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기관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 발생 (예 : 수행단체와 상의 없이 행사진행으로 인해 참여자 출석율에 영향)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사전 재단과 협의 후 최소 1주일 전 요청 공문 발송 • 행정 운영 - 재단이 아닌 타 단체와의 상의 • 단체의 장점 부각 및 홍보 자료 등 아카이빙 필요 • 단체 색깔과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홍보 방안 고민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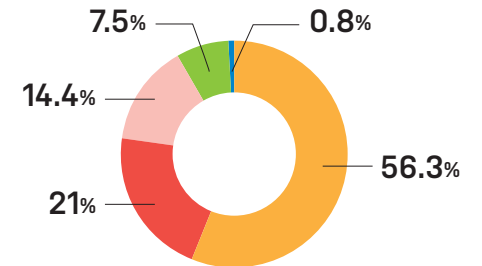
참여자 만족도

• 설문대상 : 2018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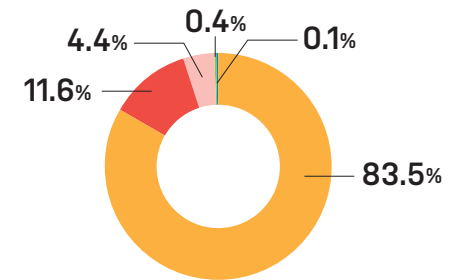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만족한다.
(교육시간, 프로그램, 강사진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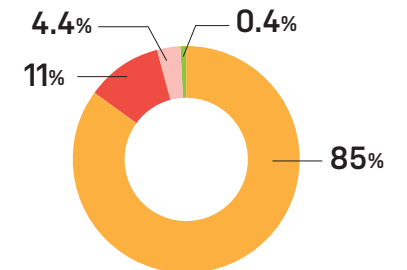
2. 교육 신청 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수업하는 교육공간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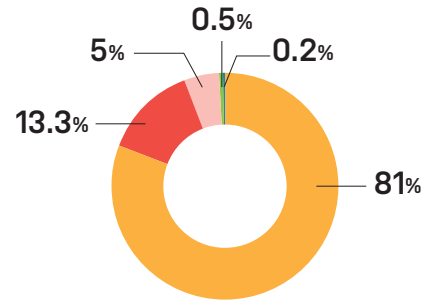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선생님의 수업 방법이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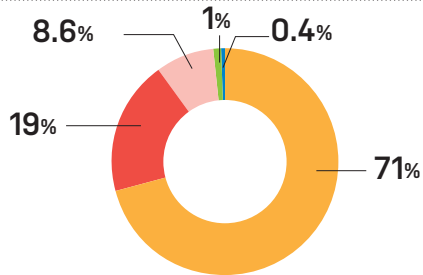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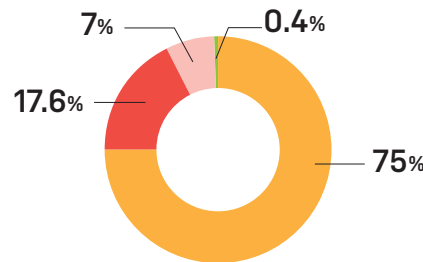
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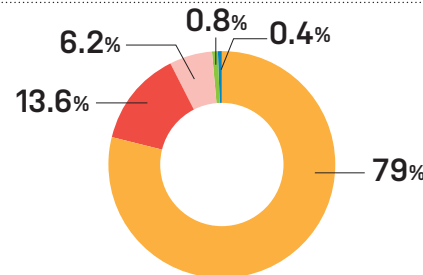
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참여 이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나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1. 이번 수업에서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가족단위의 수업참여 ♥ 틀에 박힌 수업이 아닌 자유로운 수업이 좋았다.

무료로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였다. 🎵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매우 유익했다.

바깥활동과 아이들끼리 어울려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 많은 종류의 예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드론 만들기, 3D프린터)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많이 발전 한 것 같다. 💡 각 지역 축제에 아이들과 함께 공연관람을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편안한 시간이었다. 🗣️ 저학년, 고학년간의 트러블 없이 상호간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이 체험한 것을 직접 만들고 공연한 점(영상, 연극, 뮤지컬, 무용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악기와 재료와 기법을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장애학생 특성상 이론이 아닌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흥미를 갖게 해서 좋았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울려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배움의 수업이었다.

(음악, 연극, 뮤지컬 등)을 배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키웠다.

아이들의 연극이 노래와 춤으로 한층 더 완성도 있게 완성되어 아이들 스스로 뿌듯해 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주제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의논해서 책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신선했다.

프로 배우의 특강과 친절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보다 재밌고 좋았다.

아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자녀의 특이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이들의 내재된 끼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주었고, 여러 가지 표현방법들, 표현력이 풍부해졌다.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수업 참여도가 높도록 잘 이끌어 주었다.

특별한 수업방식: 체험활동과 신체훈련(놀이수업, 체험버스, 그리기, 만들기, 1박2일 캠프, 영상, 연극, 뮤지컬 등)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고 작업실에서 작업과정을 보며 아이들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뜻깊었던 경험이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배우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무엇이라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정답보다 나의 생각을 키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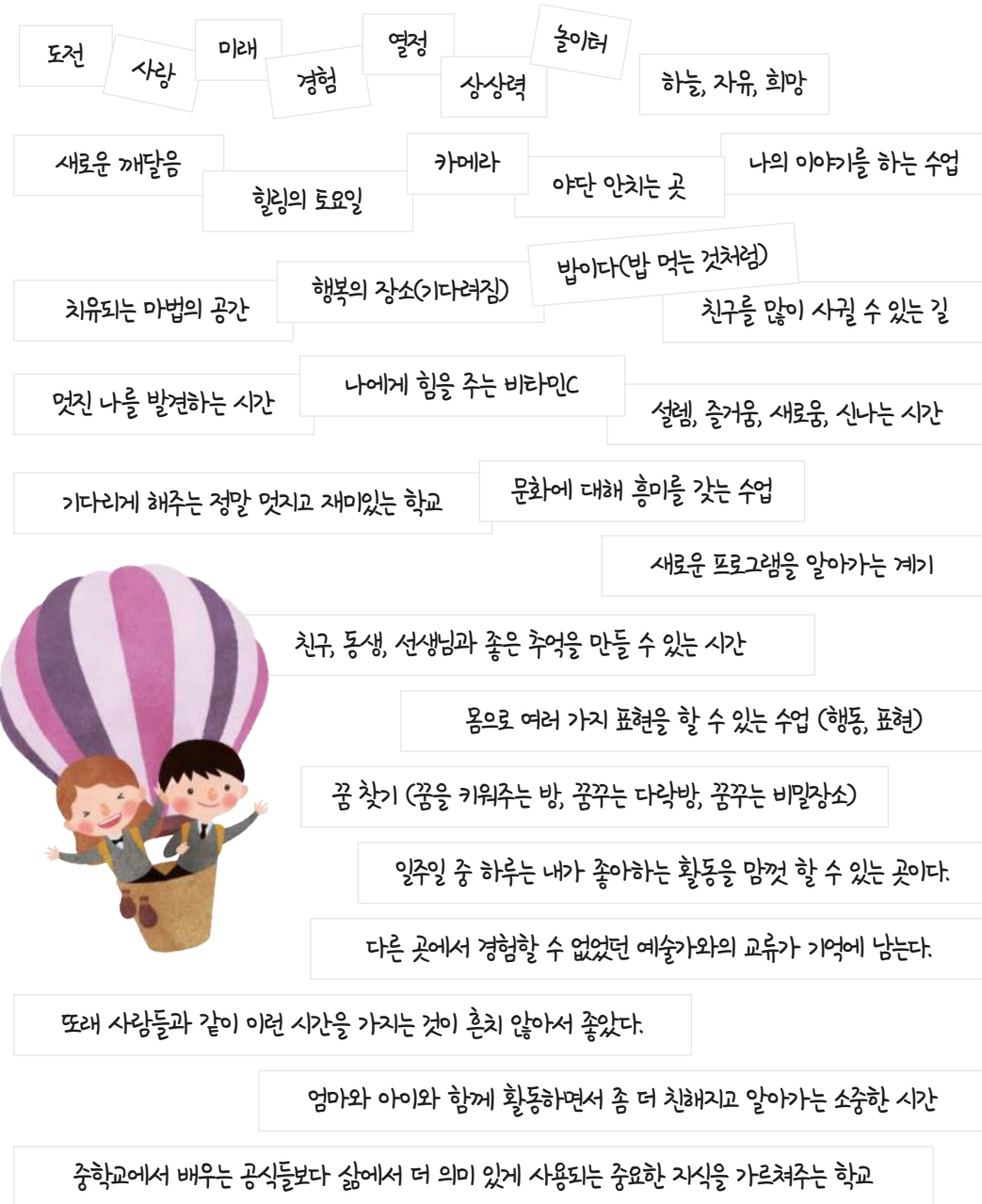
아이위주의 활동만 해오다가 부모와 함께 협동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표현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인내심도 기르게 되었고, 친말감이 생겼다.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평소 경험하기 힘들었던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를 가졌고,

결과물에 지나치게 연연하여 자칫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게 될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이었다.



2.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영상보기

생활문화본부장: 이미연
문화교육팀장: 하경희
문화교육팀: 구선미, 이민경, 박영미, 조수연, 신나리, 이재은

발행인 :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 2018. 12.

발행처 : (재)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등록번호 : (재)부산문화재단 2018-024호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2F

홈페이지 : www.bsfc.or.kr

전화 : 051-745-7281~8

팩스 : 051-743-3553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주관 : (재)부산문화재단

협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Copyright 2018 부산문화재단

· 본 자료집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재)부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부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